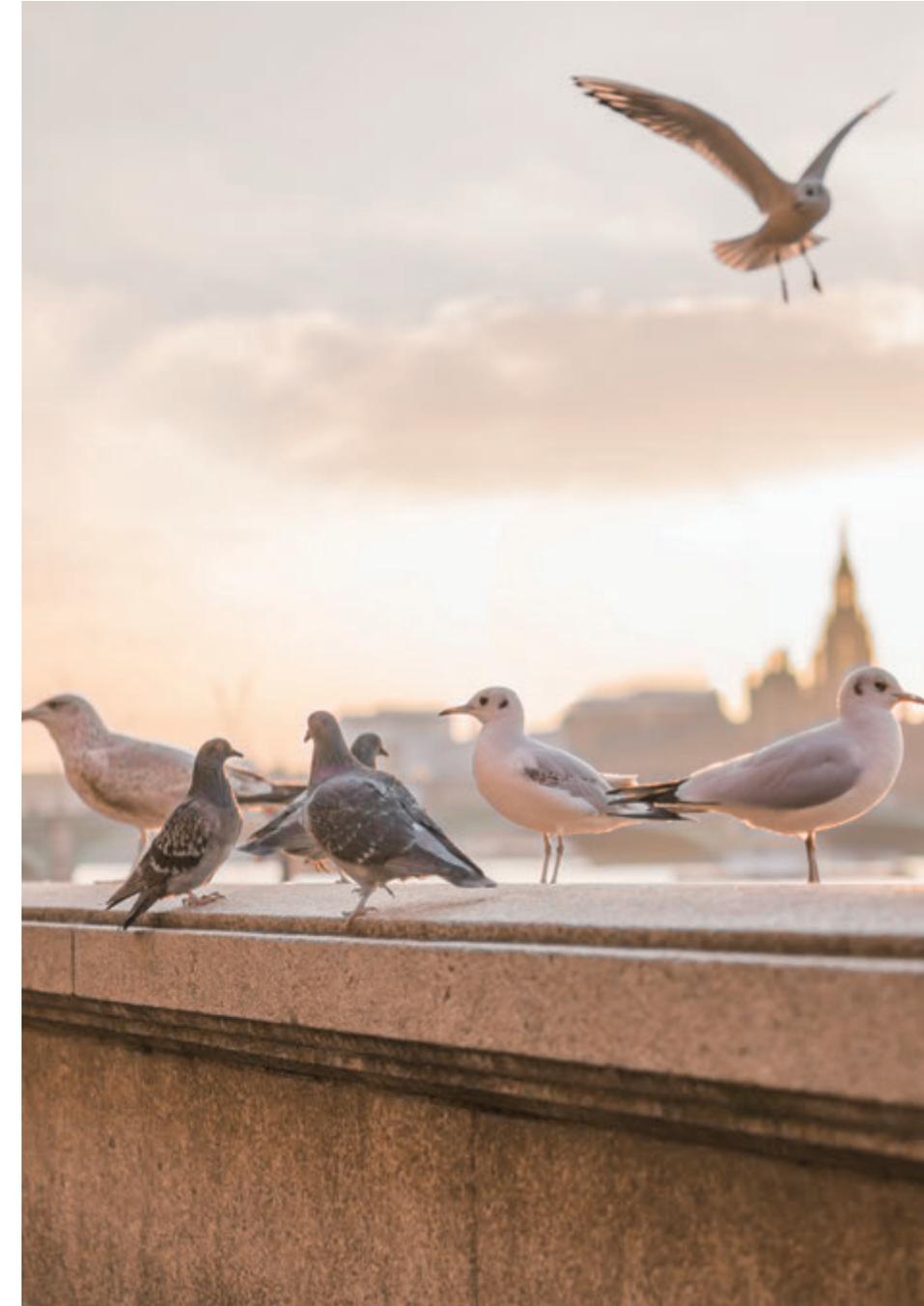


평신도

2017년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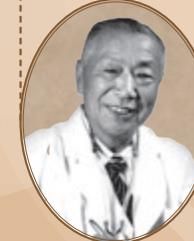
「Vol.57」

- 인사 회장 인사말
-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평신도가 된다
- 특집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다
- 나눔 평신도 연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 사도직 3
- 시 가을편지
- 이야기 우르바노 신학교 생활 체험기 2 순례자의 노래, 신심과 시심
- 특강 교황 프란치스코와 소공동체 2
- 수필 그분의 뜻
- 배움 평신도 양서 수도회 영성 영화 속 '인간과 세상'
- 소식 교구평협·회원단체

2017년 가을 제간 57호

평신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요한 세레자 구상	이나시오 김구정	가이오 김금룡	박병래 요셉	아우구스티노 양한모
				

불꽃이

20세기를 살아간 다섯 사람 이야기 향기가

되어 2

■ 구상 요한 세레자 시인 겸 언론인, 교수로 재직하며 40여 권을 내놓으면서 구도 시인으로서 문학적 삶을 꽃피웠다.

■ 김구정 이나시오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에 여생을 바친 교육자, 교회사 연구와 집필에 열중하면서 여생을 바쳤다. ■ 김금룡 가이오 레지오 마리에의 초석을 놓은 기도의 일꾼, 목포 산정동본당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레지오 마리에, 프레스 디움을 발족했다. ■ 박병래 요셉 성모병원의 기초를 다진 의사, 1936년에 설립한 성모병원의 초대 병원장으로 취임해 20년간 봉직하면서 병원의 기틀을 다졌다. ■ 양한모 아우구스티노 공산주의자였다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평신도 신학자, 가톨릭에 귀의한 후에는 평신도신학과 통일 사목을 화두로 삼아 연구했다.

책값: 13,000원 역은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펴낸곳: 도서출판 으뜸사랑 판매처: 가톨릭출판사 직영서점, 인터넷서점(예스24, 인터파크, 영풍 등)

CONTENTS

- 인사** 02 회장 인사말 / 권길중
.....
- 만남** 04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10 평신도가 뵈다 / 김주완
.....
- 특집** 13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 서상덕
17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다 / 김문태
.....
- 나눔** 21 평신도 연구 / 오용석
23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 사도직 3 / 이창훈
.....
- 시** 30 가을편지 / 이해인
.....
- 이야기** 32 우르바노 신학교 생활 체험기 2 / 박정일
36 순례자의 노래, 신심과 시심 / 정달영
.....
- 특강** 39 교황 프란치스코와 소공동체 2 / 이병호
.....
- 수필** 42 그분의 뜻 / 류은경
.....
- 배움** 44 평신도 양서 / 류주희
46 수도회 영성 / 이현화
49 영화 속 인간과 세상 / 이대현
.....
- 소식** 52 교구평협 · 회원단체

발행인 권길중 바오로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배봉한 세례자 요한
편집위원 김문태 힐라리오, 김주완 라우렌시오
나권일 토마스, 류주희 클로틸다,
명백훈 프란치스코, 서상덕 스테파노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디자인 · 인쇄 가톨릭출판사

회장 인사말

성모님께서 목동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권길중 바오로 한국·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여라”(신명 5,12).



저희 서울평협 임원들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10일까지 긴 시간 동안 성지를 순례하였습니다. 성지순례의 주제는 ‘미사와 성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례지는 미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성지, 성체의 기적이 있었던 성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본당신부님들의 주보성인’

우리의 첫 번째 순례지는 프랑스의 아르스였습니다. 아르스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께서 사목하시던 본당이 있는 성지입니다. 비안네 성인은 ‘본당신부님들의 주보성인’이시면서 ‘성체의 성인’, ‘교해소의 성인’으로 잘 알려진 신부님이십니다.

저는(다른 순례자도 같은 생각이었겠지만) 아르스 성지를 순례하면서 우리 교회의 희망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비안네 성인께서 당신께 맡겨진 양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강론을 준비하신 시간과 열정을 보면서 우리 신부님들도 주보성인을 본받으시는 모습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성체조배와 기도로 신자들과 일치를 이루신 성인의 모습에서도 우리 본당들의 공동체를 상상하였고, 실제 우리 순례단 일행은 인솔하신 신부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습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좁은 생각으로는 비안네 신부님이 성인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성덕으로 인한 것이겠지만 본당신자들이 일치해 드린 결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본당신부님의 열정을 기대하기에 앞서 우리가 신부님과 얼마나 잘 일치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살레트 성모 발현 성지

순례 4일차는 한나절 내내 버스를 타고 라살레트 성지를 찾았습니다. 평지

에서는 아직 반팔 여름복장을 했었는데, 이 성지는 벌써 겨울 날씨였습니다. 이곳은 남프랑스 알프스산맥에 속한 그르노블 인근 고산지대의 산골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몇 시간을 오르고 내린 끝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도착해서 보니 그 좁은 산골이 순례객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곳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일행 중 이곳이 성모 발현 성지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지가 아니었습니다.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측의 말을 믿고 미리 겨울옷을 준비한 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우리 순례의 주제(미사와 성체)와도 맞지 않는 곳인 듯했습니다. 여행사의 안내자는 우리 스스로가 이곳을 순례하는 이유를 알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조금 뒤 필리핀 출신 수사 신부님께서 우리를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던 현장으로 안내해서 설명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이 산꼭대기에서 외롭고 힘들게 소를 치던 11살과 14살의 멜리니 칼바와 막시앵 치료에게 발현하십니다. 이 두 목동은 눈부신 광채 속에서 처음 보는 옷을 입고 계신 아름다운 여인을 뵙습니다. 그분은 우물가의 돌 위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두 아이들에게 프랑스 표준어와 그 지방 방언을 써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신앙심이 약화되어 악행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을, 신자들이 이제는 주일미사에도 참례하지 않고 있음을 한탄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당신이 잡고 있는 아드님의 팔을 더 이상 잡을 힘이 없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을 당부하십니다.”

신부님은 그 후에 이곳에서 일어난 여러 기적들을 설명하시고, 이곳이 성지로 어떻게 공인되

었는지 등을 열심히 설명하셨지만 우리 일행의 귀에는 더 이상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신자들이 주일미사까지도 참례하지 않고 있어서’ 눈물을 흘리신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울고 계실 것이라는 현실이 너무 아파서 우리도 모두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미사 참례율이 해마다 떨어져서 10명의 신자 중 겨우 2명만이 참례한다는 통계적 현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이집 교사가 아기를 학대한 것을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친부모가 자기 아기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유기했다는 보도에 ‘말세’라고 단정지으며 허탈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들을 가두고 때리며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혼탁해지지 않도록 각각의 국민들이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웃을 보살피고 사랑하여 가정, 학교, 교회, 사회 공동체를 복원하자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악이 비단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라도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고 도덕적 우월성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이웃과 나누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일,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살레트를 순례한 것은 이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부르심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권혁기 천주교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220V 열정으로 기쁘고 따뜻하게 살아갑니다”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권혁기 바오로 안동평협 회장(63)은 늘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생활화돼 있는 평신도였다. 7월 28일 오후,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영주터미널에 도착해 전화를 하자 직접 차를 운전해 마중을 나와 주셨다. 안동평협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주시고 사는 이야기도 진솔하게 나눠주신 권 바오로 회장께 감사드립니다.



▲ 김정자 마리스텔라 화백의 「이쁜 베로니카」

권혁기 회장은 경북 영주시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난 일꾼이다. 교사 출신으로 노인대학 봉사자, 문화단체 회장, 시민단체 실무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그를 소개한 『영주시민신문』 기사에는 “그는 항상 열정이 넘친다. 남들이 주저하는 순간에도 빠른 결단력을 통해 당초 계획됐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적혀 있었다. 것처럼 에너지 넘치는 분이니 신앙에 있어서도 딱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만나기 전에 미리 드린 질문지에 맞추어 다 자료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 안동평협의 역사가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셨는지요?

“우리 안동교구 평협은 1972년 설립됐습니다. 조직과 체계를 완전히 갖추게 된 것은 1977년인데요, 당시 교구장이셨던 두봉 주교님을 모시고 김육태 레오 사무처장 신부님, 정호경 루도비코 사목국장 신부님의 지도 아래 평신도 대표 5명, 교구단체 대표 2명이 자리를 함께해 당면한 평신도의 과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평신도가 가정과 사회 안에

서 사도직 활동을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협 조직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초대 회장에 류정선 바오로 형제를 선출했지요. 정호경 신부님이 지도신부를 맡아주셨고요. 현재 안동교구장이신 권혁주 요한 크리스토토모 주교님도 1992년에서 1997년 안동교구 사목국장으로서 계실 때 안동평협의 지도신부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주교님의 사랑을 받았고, 역사도 깊지요. 앞으로 평협 설립 5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도 발족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유서 깊은 안동교구 평협의 21대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현재 김정현 마테오 안동교구 사목국장님이 지도신부를 맡고 계십니다.”

40개 성당, 5만 명 신자들의 공동체

❖ 도시 지역 교구처럼 교통 사정이 좋지 않을 텐데요. 평협 임원진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또 어떻게 도와가며 활동하고 있는지요.

“아시다시피 우리 안동교구는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40개 성당과 60개 공소, 87명의 신부님과 5만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라 신자 분들도 고령층이 많지요. 전체 신자의 25% 정도가 주일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는 안동, 의성, 상주, 문경, 북부, 동해 지구 등 총 6개 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주는 봉화, 예천군과 함께 북부지구에 소속돼 있고요. 회장인 저의 본당은 영주시 휴천동인데, 저는 휴천동성당 사목회장으로 4년간 봉사하다 과분하게도 평협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교구청이 소재한 안동 지역에서 주로 평협 회장을 많이 맡아왔기 때문에 영주에서는 제가 첫 회장인 셈이지요. 그래서 저와 같은 본당 교우인 송정섭 레오 형제가 저를 도와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영주시 하판동 본당의 김선옥 가브리엘 부회장도 저를 돕고 있습니다. 교구청이 있는 안동지구에서는 박대식

바오로 부회장, 권정숙 올리아나 부회장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안동에 감사 두 분이 계시고, 안동교구 농민회와 간호사회, 레지오와 생명환경, 성령쇄신, 전례, 교육, 행사, 여성분과 대표 등 총 31명이 현재 안동평협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교구에서 이런저런 회의와 행사가 많으실 텐데 그러자면 회장님이 안동으로 가실 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영주에서 교구청이 있는 안동까지는 제법 멀지 않나요?

“승용차로 가면 영주에서 안동까지 겨우 30분 거리입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차를 몰고 부리나케 달려가지요.”(웃음)

권혁기 회장은 평협 회장으로 일한 지는 햇수로 2년이 채 안 되지만 안동 평협에서 봉사자로 일한 지는 20년이 넘는다고 했다. 지금의 권혁주 안동교구장이 교구 사목국장으로서 재임할 때 권혁기 회장은 평협 교육분과장을 맡아 봉사했다고 한다. 그렇게 오래된 인연이고 보면, 그가 평협 회장을 맡고 있는 지금, 권혁주 안동교구장의 사목방침에 더 충실하고자 마음으로 애쓰는 이유가 짐작이 갔다. 그리고 보니 권혁주 안동교구장과 권혁기 평협 회장은 이름이 아주 닮았다. 권 회장은 “사람들이 저보고 혹시 형제나 사촌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데, 정말 주교님과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어요. 모두가 하느님의 은총이지요.” 하고 웃었다.

“친교의 날 체육대회 잘 치러져 보람”

❖ 안동교구가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평협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적지 않을 텐데요. 올해는 어떤 사업들을 해오셨는지요?

“우리 교구는 매년 5월에 6개 지구 신자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체육대회 행사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큰 도시 교구가 아니라 안동교



▲ 체육대회 인사말.



▲ 5월 3일 열린 안동교구 친교의 날 행사 및 제26회 교구장배 체육대회 장면.

구처럼 작은 교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사인데요. 지난 5월 3일에도 영주 국민체육센터에서 ‘교구 친교의 날 행사 및 제26회 교구장배 체육대회’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24개 본당 신자들과 사제단 족구팀 등 총 82개 팀이 참가해 지구별 대항전, 본당 대항전을 벌이면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행사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회장인 제가 전화통을 붙잡고 많이 협조도 요청하고 부탁도 드리면서 발품도 많이 팔았지요. (웃음) 그래서 1,3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신자들이 한데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화합하는 행사로 잘 치러졌습니다. 행사가 잘 마쳐져서 저를 비롯한 평협 임원진이 아주 보람되고 뿌듯했지요. 5월에 또 의미 깊은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안동교구 여성연합회 피정 및 발족대회를 가졌습니다. 안동교구 여성연합회가 창립함으로써 총 22개 단체가 우리 안동교구 평협을 구성하게 됐지요. 참으로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 안동교구에 올해 의미 있는 행사들이 많았군요.

“그럼요, 올해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6월부터 7월말까지 열린 원로 화가 김정자 마리스텔라 화백 전시회가 그것인데요. 성화 작품 ‘이쁜 베로니카’를 대표작으로 수묵화와 성화 작품 36점을 기증받은 것을 기념하는 전시회였습니다. 이 특별한 전시회는 김 화백과 권

혁주 교구장님과의 특별한 인연에서 시작됐습니다. 교구장님께서 주교회의 성서위원장을 역임하던 시기에 연이 닿은 김 화백이 교구장님께 감동을 받아 자신의 작품을 교구에 기증하셨지요. 그래서 지난해 축복한 안동교구청 신청서에 작품도 걸고 전시회도 가진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의 가치가 되는 작품을 기증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권혁주 교구장님은 참으로 인품이 훌륭한 분입니다.”

❖ 올해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발대식도 가지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동평협의 연간 행사 중 중요한 것이 2월 피정과 7월 피정입니다. 2월에는 평협 임원들과 본당 회장단, 제 단체장 등이 참여해서 교구 사목방침을 공유하고 실천 방안을 논의합니다. 7월에는 2월에 논의한 것들을 중간 점검하는 행사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올해 2월 피정 때 138명이 모여 피정을 하면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본당마다 관련 자료를 다 전달했고, 각 본당 여건에 맞게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 하반기에는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10월에 1박

2일 피정이 있는데요, 교구장님과 사목국장님을 모시고 안동교구 평협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주제로 한바탕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회장인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평협이 지금 어떤 것에 집중하고 어떤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토대로 평협의 비전을 제시하고 크게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월에는 또 안동에서 게이트볼대회가 열립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데요, 본당마다 어르신 선수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평협 회장으로서 더 특별히 애쓰고 노력하는 분야 있으신지요?

“안동교구는 권혁주 교구장님의 사목방침에 따라 교구 설정 50주년(2019년)을 준비하는 첫 단계로 지난 3년 동안 교구의 사목방향을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전 교구민이 함께 적극적인 선교활동에 힘써왔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올해부터 3년 동안 교구의 사목방향을 교회의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특별히 내적인 쇄신에 함께 매진하기로 했는데요, 올해는 가정의 쇄신을, 2018년에는 본당의 쇄신을, 2019년에는 교구의 쇄신을 목표로 정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평협 회장인 저는 올해 특별히 교구장님께서 강조하신 가정쇄신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정은 거룩한 복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소이니까요.”

아내의 헌신적 사랑에 감동해 신앙 키워

권 회장은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이 답해주셨다. 평생을 교사 출신으로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온 분이었다. 안동 하회마을이 고향인 권 회장은 1978년 교직에 들어선 뒤 38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교

사의 길을 걷다 지난해 퇴직했다. 영주 동산고에서만 36년을 근무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한 시간 일찍 출근해 교문에서 학생들과 아침인사 지도를 해왔다고 한다. 졸업생들이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할 정도다. 20년간 영주 동산고 연극과 농악 지도 교사로 활동하면서 88서울올림픽 당시 영주의 민속놀이인 용꼬리 따기 지도교사로 참여해 교육부장관 표창도 받았다고 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실업계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비즈쿨’을 도입해 상당한 교육적 성과를 내 교육계에서 유명인사가 됐다. 업무와 일 욕심이 많은 분임을 알 수 있었다. 하느님은 이렇게 정확하고 논리적인 분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끄셨을까?

❖ 회장님께서 신앙을 갖게 된 이야기, 하느님을 만난 체험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하느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1978년 의정부에서 군복무하던 시절에, 중대장이 저를 잘 봤는지 당시 김철 신부님께서 저를 인도해주셨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부활절에 영겁결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교리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제 뉘뉘이를 보시고는 신부님께서 덜컥 세례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신앙도 잘 모르고 해서 그냥 ‘나이롱 신자’로 살았습니다. 제대하고 첫 직장에 부임했는데, 지금의 아내가 그 학교의 교사로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인 아내와 교제하면서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그 이후 39년째 이렇게 신자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내에게 많이 감사합니다. 제 모친이 쾌장암으로 고생하셨는데, 아내가 대소변을 다 받아냈어요. 꾸르실료를 다녀오고 나서 더 헌신적으로 변화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저도 신앙에 맛을 들이게 됐습니다. 제가 7남매의 장남인데, 40대 초반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 저와 아내가 부모 노릇을 하며 동생들을 보살피고 결혼시켰습니다. 제 아내가 참 고생 많이 했지요.” (권 회장의 부인인 이화순 소피아도 권혁기 회장 못지않은 봉사자

다. 현재 영주소백가정문제상담소장을 맡고 있고, 경북도지사상, 교육부장관상, 체육부장관상, 영주시장상 등을 수상했다.)

❖ 그리고 보니 두 분은 교구장님이 말씀하신 가정 쇠신을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사셨군요.

“다른 것 없어요. 기쁘게 살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 한국평협 행사 때 우리 안동교구에 대해 사랑을 한 게 있습니다. 권혁주 교구장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기쁘고 떳떳하게’라는 제목의 ‘교구 사명선언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당마다 등에 그 선언문을 새겨서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터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박하게 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이룬다.’

모두 55글자입니다. 이걸 받고는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연구해 봤습니다. 나누고 섬기고 기쁘고 떳떳하게 사는 것이 뭘까? 원자, 분자보다 작은 것이 뭘지 아세요? 초궁극 물질인 타키온(물리학에서 다루는 가상의 입자)입니다. 이게 물질의 가장 최소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타키온은 너무 작아서 나타났다가도 금방 사라집니다. 사람이 느끼는 활력, 평화, 사랑, 행복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생활할 때는 잘 안 보이고 안 나타나는데, 이게 기도와 봉사, 묵상, 명상을 할 때는 나타나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외는 주님의 기도가 몇 자인 줄 아세요. 215자입니다. 안동교구 사명선언문은 딱 55자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고압선이라면 교구 사명선언문은 220볼트입니다. 고압선은 우리 머리 위로 높이 지나가니까 잘 모릅니다. 하지만 220볼트는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잖아요. 안동교구 사명선언문은 이렇게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제가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 몸 안에는 강력한 원자력발전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평소에는 안 느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희생해야 느껴집니다. 그러니 기쁘게 살면 됩니다.”

❖ 주님의 기도가 삶의 원칙이라면 안동교구 사명선언문은 생활의 실천 윤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참 부럽습니다.

“안동교구 평협 회장인 제가 5만 명의 신자들을 대표하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평협 회장을 하다 보니 그렇게 늘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회장 일을 해보니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본당 사목 회장 4년 할 때는 몰랐던 게 평협 회장으로 일할 때는 보이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저는 요즘 생활이 기쁘고 행복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요즘 냉담교우들이 늘어나는 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출타동시(啾啾同時)라는 말이 있잖아요. 병아리가 안에서 미는 힘과 어미닭이 밖에서 깨는 힘이 딱 맞아야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마다 감당해야 할 정신이 있어요. 경제가 발전하면 정신도, 영성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교회가, 신앙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시대의 우는 소리에 신앙이 대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사제가, 우리 평신도가 늘 쇠신해야 합니다. 라면은 100도 온도로 끓였을 때 익혀 먹어야 맛이 있지 80도 온도로 요리해 먹으면 맛이 없어요. 신앙도 깊이 맞들이면 좋습니다. 그 재미를 알고 살도록 우리 평신도들이 힘들어하는 이웃을 끌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권 회장은 논리가 아닌 가슴으로 교회와 평신도의 쇠신을 말하고 있었다. 권 회장은 1995년부터 25년째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은빛대학교 부학장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했다. 영주시에서 평생 ‘봉사’에 몸담아 온 덕

에 지역 내 많은 어르신들조차 권 회장을 ‘부학장님’이라고 부른다.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노인대학인 ‘은빛대학교’와 ‘은빛대학원’은 4년제 과정으로 매년 입학 경쟁률이 높아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탈락할 정도로 위상이 높다. 권 회장은 수준 높은 노인대학의 수많은 강사들을 섭외하고 동서양 사상에 정통한 분들의 강의를 들으며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했다. 권 회장과 그의 대화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노력해야 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었다.

❖ 성당 신자들이 많이 고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문제에 정통하신데, 우리 신앙인들을 위한 교육과 쇠신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교회도, 신부님도, 평신도들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쇠신해야 합니다. 지금이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우리 평신도들은 가슴을 흔드는 신부님들의 강론을 더 듣고 싶어합니다. 강론 듣고 절절 눈물 흘리는 신자들이 더 많이 나와야 우리가 정이 행복해지고 세상이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사제도, 신자도 더 노력해야지요. 그래서 저부터 신자답게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권 회장의 식지 않는 ‘열정’의 내면에는 기쁘게 살고자 하는 신앙의 힘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를 마친 뒤 간단한 사진촬영을 위해 권학기 회장의 본당인 휴천동 성당을 찾았다. 55년 역사를 가진 성당답게 넓고 아늑하고 평안했다. 마당 한쪽에 권 회장이 자랑한 교구 사명선언문 기념석이 서 있었다. 권 회장이 그 앞에서 밝은 미소로 포즈를 취했다. “우리는 이 터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박하게 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이룬다.” 권학기 회장처럼 220볼트의 기쁘고 따뜻한 사랑의 전기에 감전되고 있다는 느낌이 충만했다. 



▲ 안동교구 평협 임원들의 하계연수 장면.



▲ 안동교구 평협 임원과 단체장 연수를 마치고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와 함께.



▲ 안동교구 평협 임원들이 현안을 놓고 회의하고 있다.



평신도가 된다

한국가톨릭운전기사사도회 전국협의회

대담 · 정리
김주완 편집위원

올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영화라면 뭐니뭐니 해도 「택시운전사」일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속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실어 나르고, 현장의 진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고 취재를 감행한 외신 기자를 위해 힘쓴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많은 국민들이 감사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달리는 선교사 모임'이 있다. 올해 설립 25주년을 맞이한 '한국가톨릭운전기사사도회 전국협의회'이다. 회원들은 짧은 시간 속에서도 승객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다. 이번 가을호에서는 전국협의회 이양철(펠릭스, 청주교구) 회장에게서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2016년 10월 7일 청주시 올림픽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전국협의회 어울림 한마당 행사.

❖ '한국가톨릭운전기사사도회 전국협의회'의 태동 배경과 설립 목적을 들려주세요.

운전기사사도회가 맨 처음 시작된 곳은 서울 대교구였습니다. 1983년이었는데,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몰던 몇몇 분들이 신심을 돈독히 하고, 차량 봉사를 통해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듬해 1월 25일 서울 가톨릭운전기사사도회를 발족하게 됩니다. 이후 조직이 점차 확

대되었고 1992년 4월 9개 교구 임원들이 모여 전국 협의회를 결성한 뒤, 7월 13일 창립총회에서 서울대교구 임종률(디오니시오) 형제가 많은 기도를 통해 전국협의회 초대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전국 사도직 단체로 인준을 받은 것은 1994년 10월 주교회의의 추계 정기총회 때였습니다.

설립 목적은 각 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상호간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각 교구 운전기사사도회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승차하는 모든 이에게 복음 전파와 친절한 봉사의 덕을 실천하는 데 있어요.

❖ 각 교구에 설립되어 있는 운전기사사도회의 조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군중교구를 제외한 우리나라 15개 교구 전체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각 교구는 지구별·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1,200여 명의 회원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협의회 회장은 2년마다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고요.



▲ 설립 25주년 감사 미사에 참여한 전국협의회 회원들과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의 기념 촬영.

❖ 운전기사사도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무엇인지요?

1995년 7월에는 회원 간의 경험과 정보 교환을 위해 회지 「길손」을 창간했고, 1997년 7월에는 각 교구 사도회의 활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회의 순서 및 각종 기도문과 성인 축일 및 중요 성지를 수록한 수첩을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0월 1일에는 솔피 성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를 주제로 제1회 신앙대회를 열고 회원들 간의 친교도 다졌습니다. 그동안 3년마다 5회에 걸쳐 개최해 오던 체육대회를 회원들의 고행화 추세에 맞춰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 감사 미사 후 축하식에서 건배.

현양대회 등 각 교구에서 개최하는 큰 행사, 특히 사제 서품식 때 주차 안내 봉사를 하는 분들이 우리 사도회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차량에 선교 팸플릿을 비치하여 달리는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는 '사랑의 모금함'도 비치하여 모은 성금으로 교회 내 복지 기관과 단체는 물론 종교에 관계없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우와 양로원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도 시켜드리고 각종 노력 봉사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해오신 활동 가운데 특별하거나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2014년 8월 124위 시복식을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한하셨을 때가 특히 기억에 선명합니다. 교황님이 다녀가신 각 교구의 사도회 회원들이 교통 안내 봉사를 하며 교황님을 가까이에서 뵈을 수 있었는데, 정말 큰 영광이었고 벽찬 감동이었습니다.

특집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맞이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정리
서상덕 편집위원

신앙은 죽음까지 불사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선택이다.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리라'는 희망에 차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투신이 순교다.

“평신도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초창기) 한국에서는 200년 가까이 평신도
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길을 내십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7년 3월 25일 이탈리아 밀라노대교구(교구장 안젤로 스콜라 추기경) 사목 방문
중 '성직자·수도자와 만남의 시간'에 한 말이다. 사제·수도 성소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위기의식이 고
조되고 있는 이탈리아 교회를 향해 한 말이지만 오늘날 그 어느 교회도 이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6년 5월 프랑스 가톨릭 신문 『십자가(La Croix)』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유
럽 교회를 억누르고 있는 성소 위기와 관련해 얘기하면서 한국 교회 사례를 꼽았다.

“복음화의 원동력은 세례이며, 복음화를 위해 반드시 많은 사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0년 동안 평신도들에 의해 복음화가 이뤄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언급이 있기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
든 복음화 사례로 꼽혀왔다. 한국을 “평신도에 의해 복음화가 이뤄진 나라”라고 칭하는 것은 한국 교회
평신도가 세계 교회에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음의 주인은 절
대자 하느님이시지만, 세상을 복음화로 이끄는 주역은 바로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역사에 빛나
는 한국 교회 평신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순교'에 가닿게 된다. 한국 교회의 영성을 순교영성이
라고 해도 조금도 과하지 않은 이유다.

2014년 8월 교황으로서는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된 124위 가운데 중
국인 주문모 신부를 제외한 나머지 123위 순교자들은 한국 교회의 초석을 놓은 평신도들이다. 이들은

❖ 운전기사사도회가 올해로 설립 25주년을 맞았습니 다. 은경축 행사는 어떻게 치렀나요?

청주교구에서 전국협의회를 맡고 있는 관계로, 지
난 6월 7일 복대동성당에서 청주교구장 장봉훈(가브리
엘) 주교님 집전으로 설립 25주년 감사 미사를 봉헌했
습니다.

미사 후 마련된 기념식에서는 초대 회장 임종률 고
문님께 공로패가,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주신 협의회
전 회장 여섯 분께는 감사패가 전달되었고요. 14개 교
구 회장님을 비롯하여 고문님, 회원님 등 200여 명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
니다.

❖ 향후 운전기사사도회의 계획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안동교구 사도회 회원들을 더 확보하여 사도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마산교구의 중심인
마산과 창원에 사도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또한 우리 운전기사사도회 회원들은 승차하는 손
님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심을 키우
고,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통해 모범적인 평신도 사
도직 단체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고자 합니다.

❖ 전국의 평신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
사입니다. 운전하면서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냉담하다가 성당에 다시 나가고 싶어 자발적으로 갔
는데 아는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쑥스러워서
그냥 왔다는 분이 계십니다. 성당에 다니고 싶고 성
당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성당에 가서 기웃거리려도 반
겨주는 신자가 없어 그냥 왔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
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본당에서 낯선 분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아는
체하고 이끌어주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卍



▲ 2017년 7월 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교황청 시스티나 성당 합창단 내한 공연 때의 교통 봉사.



▲ 위령성월 행사 교통 봉사에 나선 대전 사도직 회원들 (2015년 11월 2일, 대전 산내 천주교 공원 묘원).

제1세대 순교자들로, 앞서 시성된 103위 순교성인들을 길러낸 신앙선조들이다. 평신도 순교자들은 엄격한 사회 구조 속에서도 주님께서 심어주신 인간 존엄의 가치를 지키며 형제적 삶을 이루고자 했다.

5 다섯째 마당 - 순교로 믿음의 씨 뿌리다 III 황일광 시몬(1757~1802)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된 '하느님의 종 124위'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삶을 살다간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그 첫자리에는 황일광(시몬) 복자가 든다.

순교자들의 삶을 기록한 약전에 '천한 신분' 출신이라고만 기록돼 있는 황일광. 하지만, 그는 당시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백정이었다.

황일광은 충청도 홍주(현 홍성)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살았던 시대, 백정은 가축 도살과 육류 판매, 유기(鑪器) 제조 등과 같은 일을 하며 살던 계층이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처럼 같은 민족, 같은 마을에 사는 이들로부터도 배척당하는 소외된 존재였다. 아니, 세리는 동족의 육을 먹으면서도 세속의 '부'나 그로 인한 힘이라도 누릴 수 있었지만 백정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도 가질 수 없었다. 그런 만큼 살아생전 사람대접을 받았을 리 없다.

그의 어린 시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우했다. 어린아이들한테도 반말을 듣고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그런 대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 풍토였다. 누구나 꺼리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 땀과 노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다 것은 생각도 못 할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느님은 그에게 놀



▲ 황일광 시몬.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라운 은총을 베풀었다. 그러한 삶에 좌절하지 않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와 올바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

1792년 그의 나이 서른다섯 되던 해, 홍주를 떠나 홍산(현 충청남도 부여지역의 옛 지명)으로 이주하던 무렵 그는 삶에 있어 일대 전기를 맞는다. 우연한 기회에 이미 홍산을 주 무대로 활동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던 '내포(內浦)의 사도' 이존창(루도비코 곤자가, 1759~1801)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

하느님의 부르심이었을까, 황일광은 용기를 내 신분도, 나이도 다른 이존창을 찾아간다. 태어나서 배움이라고 없었던 백지장 같은 상태였기 때문일까, 교리를 접하자마자 그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가 받아들인 믿음은 그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오롯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동생 황차돌과 함께 고향을 떠나 경상도로 이주했다.

그를 맞은 신앙공동체에서 백정이라는 그의 신분은 아무 걸림돌도 되지 않았다.

“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점

잖게 해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또 하나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다블뤼 주교의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을 통해 지금까지도 전해오는 황일광의 말이다.

경상도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에 맛을 들어가던 그는 1800년 2월 경기도 광주에 살던 정약중(아우구스티노, 1760~1801)의 이웃집으로 이주한다. 이때 만난 이들이 황사영(알렉시오, 1775~1801), 김한빈(베드로, 1764~1801) 등이다. 당시 그의 신앙은 모든 교우들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다.

정약중이 한양으로 이주하면서 함께 상경한 그는 아우와 함께 정동으로 이주해 땀감을 해다 팔아 생계를 꾸리면서, 힘닿는 대로 교회 일을 도왔다. 이때 주문모(야고보)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여하는 기쁨도 누렸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면서 땀나무를 하러 나갔다가 체포된 그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여러 차례 고문을 받았다. 관리들은 비천한 신분의 황일광이 자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회유마저 거부하자 화가 나서 더욱 혹독한 고문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아무도 밀고하지 않고 이겨내다 이듬해 1월 30일 고향 홍주로 이송돼 참수됐다.

제5대 조선대목구장 다블뤼 주교는 「조선 순교사 비망기」를 통해 “우리 교우들이 이 사람(황일광)을 공경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교황 성하께서 그를 제대 위에 올려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진정한 종교예식을 드리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일광의 삶은 인간 존엄과 자유, 평등 가치를 담고 있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지, 당시 사회 변혁에 얼마나 큰 동인으로 작용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6 여섯째 마당 - 순교로 믿음의 씨 뿌리다 IV 이순이 루갈다와 유중철 요한 동정 부부

이순이(루갈다)와 유중철(요한)은 세계 교회사에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동정부부(童貞夫婦) 순교자로서 '한국 순교사에서 가장 빛나는 진주'로 불린다.

유중철(요한, 1779~1801)은 전주 초남(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의 부유한 양반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유향검(아우구스티노)의 영향으로 일찍 세례를 받고 신앙 안에서 성장했다.

16세가 되던 1795년 주문모(야고보) 신부가 자신이 살던 초남 마을을 방문했을 때 첫영성체를 했다. 이때 그는 '동정생활을 하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주 신부와 부친 앞에서 털어놓았다.

이후 유중철은 동정을 지키겠다고 한 이순이(루갈다, 1782~1802)와 동정서약을 하고 평생 오누이처럼 살겠다고 다짐하고 주 신부의 주선으로 혼인을 했다. 유중철은 동정서약을 어길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순이와 함께 기도와 묵상을 하며 이를 극복해 나갔다.

1801년 봄 신유박해로 체포된 그는 전주 옥에 갇혀 동생 유문석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죽기 전에 아내에게 “나는 누이를 격려하고 권고하며 위로하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순이는 1782년 한양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천주교 신자로 살았다. 부친 이윤하(마테오)는 당대 학자 이익의 외손으로 1784년 한국 교회 창설 직후 신앙을 받아들였다.

천주교라는 새로운 종교와 사상의 세례를 받은 이순이는 이미 십대의 나이에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버렸지만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보다도 세상을 잘 살려고 했다. 천상을 지향하면서도 누구보

특집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맞이 -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다【손병두 회장】 기도하는 평신도가 되어야

대담 · 정리
김문태 편집위원



▲ 이순이 루갈다.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유중철 요한.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다도 현실에 성실했다.

이순이는 1793년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와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다 15세가 되던 1797년 동정 생활을 결심했다. 딸의 결심을 들은 어머니는 주문모(야고보) 신부와 의논했고, 전주 유중철과 맺어질 수 있었다.

이순이는 다음 해 9월 남편 고향인 전주 초남으로 가서 살았다. 1801년 신유박해가 발생하면서 시아버지 유항검(아우구스티노)은 한양으로 압송되고 남편 유중철은 전주로 끌려갔다. 이순이도 가족들과 함께 전주로 압송됐다. 그는 순교를 원했으나 함경도로 유배를 떠나게 됐다. 다시 체포된 이순이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어머니와 언니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겪은 일을 전하고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 이들을 위로한다.

“순교를 하게 되면 그 기이함을 어느 순교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다른 성인들이야 응당 할 일을 하신 것이겠지만, 감히 우러러나 볼 순교를 이 보잘것없는 생명에게 허락하시면 그런 황송한 일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 내 죽은 것을 산 것으로 아

시고, 산 것을 죽은 줄로 아시며, 나를 잃은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남편 유중철이 순교한 후 1년 뒤인 1802년 1월 31일 친척들과 함께 전주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향년 20세였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인 평신도들로 인해 조선사회는 새로워진다. 다시 태어난다. 천민들도 같은 인간이라는 평등사상이 전파되고, 이로써 신분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또, 당시까지 한낱 남성의 부속물쯤으로 여겨지던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 생겨났다.

신앙에 눈을 뜬 평신도들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가지로 여기고 이를 위해 목숨마저 초개처럼 버릴 수 있었다.

2014년 8월 124위 순교자 시복식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순교자들의 모범은 막대한 부유함 곁에서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많은 일깨움을 준다.”고 했다. 



▲ 손병두 회장.

2018년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설립 5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 지난 50년을 회상하는 한편, 앞으로의 50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는다.

삼복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8월 2일 서울지하철 강남역 옆에 자리한 삼성생명 6층 호암재단 이사장실에서 손병두 요한 보스코 전 회장(76)을 만났다. 그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제15대 평협 회장을 역임하였다. 동서투자자문 대표이사 사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코피온 총재, 서강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KBS 이사장 등 다양한 단체를 이끌어온 경영인이자 교육자답게 차분하고도 신중한 모습이었다.

❖ 세례를 받으신 계기와 이후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경남 진주의 유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큰형님이 결혼하시면서 세상에 천주교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형수가 천주교 구교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 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해서 입주 가정교사를 했는데, 그 집안이 독실한 가톨릭이었습니다. 자연히 그 분위기에 젖어들었고, 성인전과 같은 교회서적을 읽으며 천주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타계하시자 죽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됐지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으니 세상

이 참 쓸쓸했습니다.

무작정 무전여행을 떠나 합천 해인사에 가서 스님들과 토론하기도 했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신앙강좌를 들어보기도 했고, 명동성당에서 신부님들의 강론을 듣기도 하면서 정신적인 방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법리학자이자 가톨릭 법사사가였던 오경웅(吳經熊) 박사가 쓰신 『동서의 피안』을 읽고 천주교를 믿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본당 전교회장님의 특별 교리교육을 받아 영세 입교하였습니다. 세례명은 『돈보스코 성인전』을 읽고 교육자요 사회사업가인 그분을 본 받아야겠다고 해서 제가 선택했지요.

세례 후 제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심에 불타 온 세상 사람들을 천주교로 영세 입교시키



▲ 2004년 9월 하상대학 신앙강좌.

고 싶은 열망이 불타올랐거든요. 그래서 당시 가톨릭학생회 지도신부이신 나상조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을 찾아뵙고 '서울상대 가톨릭학생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1학년이었던 한홍순 전 바티칸대사와 홍문신 전 산업연구원 원장 등 가톨릭 신자들을 모아 활동했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ROTC 장교로 전방 소대장으로 갔습니다. 개신교는 사단 단위, 연대 단위까지 군종목사가 있었지만, 가톨릭의 군종신부는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단에 신학생 2명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사단 수송부에 교섭해서 차량한 대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천주교 신자들도 주일이면 공소예절을 할 수 있었지요. 그 신학생들이 바로 최창화, 나원균 문시놀이십니다. 그때 '가톨릭 군인회'를 조직해 회장으로서는 신자 사병들을 음양으로 돌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 교회에서 봉사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군에서 예편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 나상조 신부님을 모시고 '가톨릭 청년사도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열심히 신앙심을 키워갔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화곡동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는데, 신부님 집 마당에 천막을 치고 30여 명 정도가 모여 미사를 드렸지요. 이사 후 첫 주일미사를 갔는데, 신부님이 저를 포함해 몇 사람을 사목위원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제가 29세 때에 교육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겁니다. 그 분당신부님이 원로사제이신 김형식 신부님이십니다.

그 뒤 화곡동에서 ME 소개모임에 갔다가 그 길로 ME 주말교육을 받고 봉사자로 뽑혀 ME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ME 주말교육 체험을 하고 나서 나 자신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내 신앙생활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비전을 갖게 됐고, 이 세상 곳곳에 하느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쇄신할 수 있다는 소명의식에 불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ME 대표도 됐고, 아시아 ME 대표도 돼서 세계 ME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ME 가족을 대표하여 활동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평협 회장으로서의 지향점과 주안점, 그리고 보람된 일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찍이 사목위원이 되는 바람에 이사 가는 곳마다 사목회 일을 맡게 됐습니다. 대치동 성당 총회장 때부터 평협 주최 모임에 참여하여 이관진, 박정훈, 류덕희, 여규태, 한홍순, 최홍준, 강주희 회장님 같은 교회지도자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 김수환 추기경님을 비롯한 교회 정상들과도 교분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규태 회장님 다음에 제15대 평협회장으로 선출됐지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의 중요성과 위상을 높이자는 뜻에서 평협이 탄생된 만큼, 평신도의 목소리를 교구장님을 비롯한 사목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성직자 중심의 교회운영을 탈피하여 평신도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도직의 위상과 조직구조에 대한 워크숍을 열기도 했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평협은 분당 총회장과 평신도 단체장이 함께하는 조직으로서 명실상부하게 교구장을 보좌하는 평신도들의 대표조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이 된 뒤에는 박정훈 회장님이 펼친 '내 탓이오' 운동과 여규태 회장님이 펼친 '똑바로' 운동에 이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지요.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정인 가정의 성화되고 행복하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이상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자살, 폭력, 마약, 저출산, 이혼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병리현상이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가정을 성화시켜 건강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자는 캠페인이었지요.

아울러 그때는 소위 IMF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사태로 많은 실직자와 가정이 참으로 암울하고 고달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들과 그 가정에 위안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 명동성당에서 <하상신앙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주1회 1강좌씩 12강좌를 했지요. 강좌 당일에 1,200여 명이 몰려와 성당이 입주의 여지가 없었고, 일부는 자리가 없어 돌아가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강좌에 왔던 분들 중에 영세 입교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 2004년 북한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

또한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도 펼쳤습니다. 평협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인 김현욱 회장님과 함께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포스트홀에서 1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여 탈북자의 증언을 청취하고 기도회를 개최했지요. 그리고는 성모상을 모시고 명동성당을 돌면서 묵주기도 5단을 바쳤습니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이면에는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오 교회에서 처음에 서너 명의 신도가 통일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십만여 명의 신자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말에 용기를 얻었거든요.

이 운동을 계기로 전국의 성당에서 평화통일 기도운동을 전개하면 우리도 독일처럼 휴전선 철조망이 걷히고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가 평협 회장을 마친 후 지속되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에 평협이 북한 구원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게 듭니다.



▲ 2005년 12월 16일 가정사회사목연구소 축복식.

❖ 교회 내에서 평신도의 역할과 앞으로 평협이 나아갈 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평협이 발족한 지 50여 년이 됐지만, 아직도 평신도의 위상과 역할이 제대로 정착됐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교구마다, 본당마다 교구장님과 신부님에 따라 평신도의 위상과 역할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도 우리 교회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라고 봐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직자도 평신자도 아닌 하느님 중심의 공동체여야 하며, 모든 것을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평신도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성직자들도 평신도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이행돼야 하지요. 평신도 각자가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 운영에 자율성과 개방성, 투명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합니다.

평협은 어디까지나 평신도들이 모인 신앙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평신도들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모상을 닮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활동에는 늘 성령이 함께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신도 활동에는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평협은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공동체가 돼야 하는 겁니다. 평협이 성직자들과 어떻게 일치를 이루며 이 세상에 하느님 말씀을 구현할 수 있을 까를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지요. 왜 냉담교우가 늘어가는지, 왜 교세가 정체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교회장상들과 성직자들과 함께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며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감을 잃고 자조적인 무기력증에 빠져들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손길을 내미는 노력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빛이 되고자 하는 교회가 사랑이 없는 정의만을 외치다가 신자들을 떠나보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이 함께하는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하지요. 성직자들은 사목자로서 양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양의 냄새가 나도록 몸을 낮추어야 하며, 평협은 신뢰와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

평신도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한국 교회의 평신도 중심 쇄신

오용석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사회사도직연구소 소장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우려

이제 세상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AI(인공지능)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바둑의 알파고, 의료의 AI 닥터 왓슨에서 보듯이,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1등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서 파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심각한 문제로서 무엇보다 먼저 걱정되는 것이 젊은이들의 앞날이다. 그들은 '인간필패 증후군'에 사로잡혀 처음부터 아예 노력을 포기해 버리고 선망하던 일자리마저 사라지는 상황에서 사회에서 쉽게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는 중간 기술이 사라짐에 따라 지식과 기술, 소득과 부의 양극화로 삶의 불평등구조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크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우려로 교회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기술진보에 따른 교회의 위기

사실, 그동안 급속한 기술진보로 이루어지는 산업혁명 시대의 전환을 거치면서 인간의 종교적 심성은 갈수록 피폐해졌다. 사람들은 종교와 과

학, 교리와 진리 사이에서 혼돈을 겪는 가운데 종교에 대한 불신과 무신론이 조장되었다. 그로 인해 종교를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가톨릭교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 서방 세계 곳곳에서 대형 교회들의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져 유명 성당들은 관광명소로 바뀌었다. 이렇게 된 데는 계속되는 산업혁명 시대의 전환기를 맞으면서도 교회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무엇보다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회'에 헌신하는 평신도 활동의 기여가 큰 취약점으로 작용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환기인 지금은 어떠한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복음의 기쁨」과 「찬미받으소서」에서 누누이 지적하듯, 이 시대에 인간의 지적 창조능력은 커졌지만 미래보다 현재만을 위한 소비주의와 찰나적인 쾌락주의 만연으로 영원한 삶과 행복의 가치를 더욱더 등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징검다리가 된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화기술 사회라고 하지만 정작 인간 자신의 깊은 내면에 대한 정보는 간과되고 정보기기에만 매몰된 채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소통마저 단절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기적 시대 상황 아래서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국 사회에서 높아진 가톨릭교회의 위상 때문에 신자 수는 2016년에



공의회 강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 사도직 (3)

이창훈 알폰소 서울평협 기획홍보위원장, 가톨릭평화신문 기자

이 글은 『가톨릭평화신문』과 월간 『레지오 마리아』에 연재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사도직 교령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네 번에 나누어 실는다.

4) 교회와 세상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변화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한 분야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 혹은 세상에 대한 교회의 이해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 특별히 다루고 있는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현장 「기쁨과 희망」이다. 사목현장의 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한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 이든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가 인간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는 인류와 인류 역사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체험한다”(1항).

공의회 문헌 가운데서 말 그대로 ‘심금을 울리는’ 대목으로 꼽히는 사목현장의 이 대목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결부돼 있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공의회 이전에 교회는 세상을 이러한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 공의회 이전에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일반적 시각은 이원론에 가까웠다. 이원론이란 한마디로 세상이 영과 육, 성과 속, 정신과 물질, 선과 악의 대립 구조로 진행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물론 교회가 이원론을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교회는 이런 이원론을 언제나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래도 교회와 신자들의 실제 삶에는 이원론적 경향이 적잖게 배어 있었다. 교회 일을 하는 성직자나 세속을 떠난 수도자에 비해 세속에 파묻혀 사는 평신도는 열등하다는 생각, 성을 속되다고 보고 독신이나 동정 생활을 결혼 생활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생각, 현세 삶은 귀양살이에 불과하기에 내세만을 본향으로 여겨 그리워하는 생각 등이 바로 이원론적 경향에 해당한다. 오늘날에도 영혼의 세 가지 원수 곧 삼구(三仇)로, 마귀와

574만 명을 넘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는 1/5도 채 안 되는 112만 명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신자의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2016년 주민등록 인구 중 신자 비율은 11.1%이지만 10대 이하 신자 비율은 5.8%에 불과하다. 미래의 신자 수 급감이 우려되는 이유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절실한 평신도 중심 쇄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일이 급선무이다.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방황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그들의 앞날이 막막하기에 꿈이 있을 수 없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꿈이 없으니 누구라도 붙잡고 묻고자 할 것이다. 교회는 이들에게 답을 주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과연 그들에게 만족스러운 답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I가 분석해 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기록이 담긴 소셜 빅데이터의 활용이 일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국가와 기업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활용을 통해 인간의 마음과 세상의 흐름을 복음화로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방식도 학생들이 수업을 이끄는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로 바뀌고 있다. ‘가르치는 교회’(Ecclesia docens)와 ‘배우는 교회’(Ecclesia discens)의 엄격한 구분을 경고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세상 학교들이 먼저 실행하는 셈이다.

이런 변화에서 교회에 요구되는 것이 전문성 있는 평신도들의 교회업무 참여 확대이다.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읽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를 통합 개편하여 평신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있다. 작년에 개편

된 ‘평신도·가정·생명 성’과 올해 개편된 ‘통합적 인간발전증진 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세상도 교회도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서둘러야 할 쇄신의 출발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과 「교회법」에 충실함이다. 성좌 국제신학위원회의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4항)에서 지적된 대로 “능동적 교계제도와 수동적 평신도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한국 교회의 교계와 평신도 모두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와 동시에 「교회법」(제512조와 제228조)에 따라 각 교구 ‘사목평의회’에 평신도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비성무(非聖務)적 교회 사업은 평신도 전문가 중심 체제로 과감하게 개편하여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게 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 교회에 허용된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

세속과 육신을 들면서 마귀만 아니라 세속과 육신까지도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성과 속, 영혼과 육신을 대립 구조로 이해하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이원론적 경향에는 세상을 불변적이며 정적으로 이해하는 세계·역사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현세를 귀양살이로 여기고, 내세의 천국만을 그리워하는 것을 당연시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와 역사의 변화와 발전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고정된 실재로만 여기는 정서와 무관치 않았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교회는 이런 세계관에서 벗어난다. 바깥세상과의 단절을 통해 그리스도 제자 공동체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세상과 대화하며 세상과 화해한다.

교회는 단지 세상을 위해 혹은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마디로 전 인류 가족과 함께 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비롯하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거룩하지만, 또한 나약한 인간들로 이뤄진 공동체라는 것도 새롭게 인식한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돼 있지 않다. 오히려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한다. 세상 사람들과 긴밀하게 결합해 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현장 첫 대목에 나오는 저 가슴 뭉클한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사람들 가운데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도 이제 세상에 파견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 교회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해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외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 안에 숨겨진 보화를 찾으라고, 하나님 모습대로 창조된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 모습을 되찾아 함께 기쁨을 누리자고 초대한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신 그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되찾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개선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초대한다.

그뿐 아니다. 교회는 또한 세상으로부터도 도움을 얻는다. 공의회는 이렇게 고백한다. "교회를 역사의 사회적 실재로 또 그 누룩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도움이 되듯이, 바로 교회도 인류의 역사와 발전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지 않는다.…… 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 각각의 자기 자녀들 안에서 온갖 계층이나 신분의 사람 들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있다. 가정, 문화, 경제, 사회, 정치의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인간 공동체를 향상시키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교회 공동체에……적지 않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사목현장 44항).

이러한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인해 달라진 모습이다. 역사는 고정된 실재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하고 발전한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서 영과 육, 정신과 물질, 성과 속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보시니 참 좋았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간다.

II. 교회현장의 평신도 이해

교회현장 제4장은 평신도를 다룬다(30~38항). 평신도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성직자와 수도자 신분을 제외한 모든 신자를 말한다.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성직자나 수도자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똑같은 품위를 지닌다. 그런데 평신도에게는 '세속적 성격'이라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그래서 성직에 종사하며 하나님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성직자나 참 행복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수도자와는 달리 평신도의 고유한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31항)이다.

이를 위해 평신도는 나름대로 사도직을 수행하고 교회 사명에 참여한다. 평신도들은 교계 사도직, 곧 성직자들에게 맡겨진 직무에 좀 더 직접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사도직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사제직과 왕직과 예언자직을 수행함으로써 사도직을 실천한다.

평신도들이 모든 일을, 곧 기도와 사도적 활동과 부부 생활과 가정생활은 물론 일상 노동과 심신의 휴식까지도 성령 안에서 행하고 특히 삶의 괴로움을 곳곳이 견뎌낸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다(34항). 또 믿음과 희망으로 인내하면서 세상의 악을 거슬러 싸우는 생활의 증거와 말씀 선포를 통해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써 예언자직을 수행한다(35항). 나아가 겸손과 인내로 이웃에게 봉사하고 극기와 거룩한 생활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쳐 이김으로써 왕직을 수행한다(36항).

하지만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사도직 수행과 관련해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인 목자들이 교회 안에서 결정하는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목자들 또한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의 품위와 책임을 인정하고 향상시켜야 한다(37항).

평신도들은 이렇게 저마다 세속에서 그리스도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표지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한다. 현장은 평신도에 관한 부분을 마치면서 평신도를 '세상의 혼'이라고 부른다. "영혼이 육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그 혼이 되어야 한다"(38항).

III. 평신도교령의 평신도 사도직

1. 평신도교령의 특징과 구성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와 평신도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평신도 사도직의 본질과 성격, 다양성과 기본 원칙, 효과적 실천을 위한 사목 지침 등을 제시하는 문헌을 발표했다. 그것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평신도 사도

직에 관한 교령(이하 평신도교령) 「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이다.

공의회의 마지막 제4회기 때인 1965년 11월 18일에 공포된 교령은 이보다 1년 앞서 공포된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이하 교회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그 가운데서도 ‘평신도’에 관한 제4장을 교리적 기초로 하고 있다. 또 평신도교령이 제대로 다 취급하지 못한 사도직 부분은 공의회 폐회 전날인 1965년 12월 7일에 공포된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이하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평신도교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교회헌장과 사목헌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평신도교령은 △서론(1항) △평신도 사도직 소명(2~4항)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5~8항) △사도직의 여러 분야(9~14항) △사도직의 다양한 형태(15~22항) △사도직에서 준수해야 할 질서(23~27항) △사도직을 위한 양성(28~32항)과 권고(33항) 등 전체 33항으로 이뤄져 있다.

2. 평신도의 사도직 소명 : 그 토대와 영성(2~4항)

1) 평신도 사도직의 본령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평신도 사도직’이란 특별한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일부 계층의 평신도에게 한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됐다. 그런데 공의회는 평신도, 곧 교회를 이루는 하느님 백성 가운데 성직자와 수도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모든 이들도 다 사도직의 소명을 받고 있음을 천명한다.

① 사도직이란 무엇인가? 교령은 ‘교회 사명, 혹은 교회 설립 목적을 위한 신비체의 모든 활동’(2항)을 사도직이라고 규정한다. 물론 신비체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킨다. 평신도 역시 신비체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 사명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평신도 사도직이 무엇인지 규정할 수 있다. 평신도 사도직은 교회 사명 수행을 위한 평신도의 모든 활동이다.

② 교회 사명은 무엇인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이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영혼을 구하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널리 사용되던 말 가운데 ‘삼구’(三仇)가 있었다. 삼구란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래서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세 가지 원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세 가지 원수는 육신과 세속과 마귀였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삼구란 용어는 사실상 폐기됐다.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원수는 마귀뿐이다. 육신과 세속은 멀리해야 할 원수가 아니라 잘 관리하고 개선(改善)함으로써 구원의 여정으로 함께 이끌어야 할 대상이다.

실제로 교령은 교회 사명과 관련해 이렇게 밝힌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총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뿐 아니라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하는 것이다”(5항).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총을 전해주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뿐 아니라 “현세 질서”를 복음 정신으로 개선하고 완성하는 일까지도 교회 사명에 속한다.

여기서 현세 질서란 바로 세속 사회의 질서, 세속의 삶을 가리킨다. 따라서 세속은 이전처럼 결코 몰아내고 경계해야 할 원수가 아니다. 평신도교령은 오히려 세속이 평신도

의 고유한 삶의 자리임을 강조한다. 여기에 또한 평신도 사도직의 특성이 있다. “세상 한 가운데서 세속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신도의 신분이므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불타올라 마치 누룩처럼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름 받았다”(2항).

이것이 평신도 사도직의 본령이다. 물론 평신도 역시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지체이기에 자기 역량에 따라 교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평신도의 고유한 자리는 세속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복음화와 인간 성화에 힘쓰면서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하도록 노력하는”(2항) 것이 바로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2) 평신도 사도직의 토대

평신도 사도직은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같은 주님이신 성령에게서 나온다. 그 근거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에게서 파견돼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지고한 사랑을 드러내신 것처럼, 세례성사로 그리스도와 결합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자신의 삶의 자리로 파견된다. 또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의 힘으로 튼튼해진 평신도들은 성령에게서 받은 은총의 선물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행복과 교회의 건설을 위해 이 은사를 사용할 권리와 의무”(3항)를 지닌다.

하지만 이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 특별히 유념해야 할 일이 있다. “성령의 자유로운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특히 자기 목자들과 일치를 이루며 사용해야 한다”(3항). 교령은 “이러한 은사의 순수성과 올바른 사용에 대한 판단은 목자들이 할 일”이라며 목자들의 판단에 따를 것을 요청한다. 그것은 “성령의 불을 꺼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좋은 것을 보존하려는 것”(3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나 혹은 밖에서 사도직 수행과 관련해 함께하는 형제 평신도들과는 물론 지도신부라도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서로 마음을 열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무엇이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헤아려야 한다. 그래도 부합하는 결론을 내지 못할 때는 목자들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도리다. 목자들 역시 자신들이 내리는 판단이나 결정이 개인적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닌지, 신자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것은 아닌지 깊이 유념해야 한다.

3) 평신도 사도직의 영성

영성이란 간단히 ‘삶에서 풍기는 신앙의 향기’라고 할 수 있다. 관건이 되는 것은 신앙과 삶의 일치다. 평신도는 “일상생활의 현세 임무를 올바로 이행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와 자기 삶을 분리시키지 말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일치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4항).

신앙과 삶의 일치와 관련, 두 가지가 강조된다. 하나는 일상생활의 현세 임무를 올바로 이행하는 것이다. 평신도는 “영성 생활을 이유로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다른 세속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4항). 그뿐 아니라 “직업의 전문 지식,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사회생활과 관련된 덕 곧 정직, 정의, 성실, 친절, 용기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런 덕행들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덕행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4항).

다른 하나는 “모든 사도직의 원천이시며 기원이신”(4항)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일이다. 그리스도와와의 일치는 성사, 특히 사랑의 성사인 성체성사를 통해 강화되기에, 평신도들은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일치를 강화하고 이 일치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평신도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가운데 사도직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끊임없는 실천”(4항)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불어넣어 주시는”(3항)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덕을 통해 평신도들은 특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평신도 사도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늘 성령께 마음을 열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특별히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대신덕(對神德)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자주 성찰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3.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5~8항)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져다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한 가지를 잘 보여준다. 그것은 현세 질서를 개선하고 완성하는 일을 교회 사명에 포함시킨 것이다. “교회 사명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총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뿐 아니라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하는 것이다”(5항).

1) 평신도 사도직의 두 가지 목표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복음화와 성화(6항)이고 다른 하나는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화(7항)다. 복음화와 성화는 전통적으로 말씀 선포와 성사 집전을 고유한 직무로 하는 성직자들의 몫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교령은 평신도들이 “진리의 협력자”(3요한 8)가 돼야 한다면서 평신도들도 복음화와 성화를 위한 사도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평신도는 어떻게 복음화와 성화를 위한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교 생활의 증거와 초자연적 정신으로 실천하는 선행”(6항)을 통해서다. 내가 그리스도 신자임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실천할 때 그것은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과 신앙으로 이끄는 힘”(6항)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기회가 있는 대로 말로써도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하는 사랑 이야기는 힘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으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요란한 구호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가 드러내는 행동은 가식과 위선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말과 행동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빛을 가려 버린다.

평신도 사도직의 또 한 가지 목표인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화는 사람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생활환경과 현세 질서 곧 세상을 대상으로 한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현세 질서를 개선하고 끊임없이 완성해 나아가는 것”(7항)이기 때문이다.

현세 질서의 개선과 완성을 창조 질서의 보전과 연관된다. 현세 질서를 이루는 모든 것 곧 인간 삶의 행복이나 가정의 선의, 문화와 경제, 국가 제도, 국가 관계 등은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고유 가치는 “하나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 하신 창조 질서를 반영한다. 그런데 ‘보시니 참 좋았다’ 하신 창조 질서가 인간의 악습과 잘못으로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렇게 훼손된 “현세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는 것이 온 교회의 임무”(7항)이지만 특별히 세속에 몸담고 있는 평신도에게 고유한 임무다. 평신도는 현세 질서의 개선을 고유 임무로 받아들이고……복음의 빛과 교회 정신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확고하게 바로 행동하여야 한다”(7항).

2) 그리스도교 양심의 지배: 신앙과 삶의 일치

복음화와 성화, 그리고 현세 질서의 개선과 완성이라는 평신도 사도직의 두 가지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서 평신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신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인 평신도는 두 질서—교회의 영적 질서와 세상의 현세 질서—안에서 지속적으로 한 그리스도교 양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5항).

그런데 많은 평신도들이 이 점에서 어려움에 직면한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똑같이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쪽박 차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는 자신들의 고유 임무인 현세 질서의 개선을 위해 더 더욱 노력해야 한다. “시민으로서 전문 지식과 고유한 책임감을 지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야 한다”(7항). 현세 질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질서와 현세 질서 안에서 동일한 그리스도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도 쉬워질 것이다. 卍

» 다음 호에 계속

가을편지

— 석류나무 앞에서

이해인 클라우디아

부산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수녀.
시인

1

길을 가다
석류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저 높이

푸른 하늘을 이고
석류는 지상에서
불게 타는 기도입니다

열매로 오기까지

오래 기다렸어요
힘들었어요
나직이 고백하는
석류의 음성이
나를 따라옵니다

2

하나뿐인 사랑이여
당신 앞엔
나도 늘
감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인내할 용기를
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립니다

삶에는 아픔이 꼭 필요하고
아픈 만큼 아름다운 열매로
빛을 내는 것이라고
다시 알아들으며
두 손을 모으는 오늘

하늘 향한 그리움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하도 잘 익어서
터지는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석류나무 앞에서

가을 속의 나는
잘 익은 행복을 꿈꾸며
다시 길을 갑니다 

우르바노(Urbano) 신학교 생활 체험기 2

“신학교에 가면 유학도 갈 수 있대”

박정일 미카엘 원로사목자, 전 마산교구장 주교



필자 박정일 주교.

‘우르바노(Urbano) 신학교 생활 체험기(1)에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장황하게!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 선교 사명과 그 사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황청 안에 포교성성(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이 설치되었고, 전 세계 전교지방 신학생들을 교육하려고 교황 우르바노 8세께서 신학교를 설립하였으며, 그 신학교가 우르바노 교황님의 이름을 따서 우르바노 신학교(아래 사진)가 되었고, 현재 우르바노 신학교 소재지도 우르바노 교황님의 이름을 따서 ‘우르바노 8세로’라고 지었다는 데까지 설명하였다.

부모님과 꿈같은 재회를 하고

제주읍을 떠나 부산 영도 신선동본당으로 자리를 옮긴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은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교수 신부님이 4명 밖에 없었으니 모든 학과 공부를 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철학과 1학년에 편입하여 공부를 시작

하였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받는 것이 처음이어서 참으로 감개무량하였다. 그때에 철학과 학생은 불과 3명, 철학교수는 오기순 알베르토 신부님이었다. 그분은 일본의 규슈 나가사키시에 있었던 폰베틀알 프란치스코회가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수학하신 신부님이었다.

지금도 발행되어 우리에게 낯익은 『성모의 기사』라는 월간지는 일본 규슈 나가사키시에 있던 폰베틀알 수도회에서 발간하기 시작한 잡지이며, 성 마리아 콜베 신부님이 그 잡지사의 창설자이다. 오 신부님께서는, 당신의 교수이었던 콜베 신부(폰베틀알 프란치스코회 수도사제로서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대신하여 사형을 받은 ‘사랑의 순교자’)를 가끔씩 추모하곤 하였다. ‘나의 스승은 이웃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홀

륭한 성인 순교자이신데 나는 못한 사제야!’라는 말씀을 하시며 스승을 그리워하셨다.

편안하게 신학교 생활을 하고 있던 1951년 봄 어느 날, 나는 청천벽력 같은 놀

라운 편지 한 장을 받았다. 허름한 편지지에 연필로 쓴 여동생의 편지였다. 부모님과 여동생 셋이 피난에 성공하여 인천에 있는 피난민 수용소에 와 있다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소식이었다. 나의 「북한 생활 체험기」 연재에도 썼지만 1950년 12월,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북진할 때에 나는 서울 신학교 사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평양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나의 고향은 평양 북쪽 약 100리 되는 곳이다) 부모님과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서 월남하였다.

여름 방학이 되어 나는 바로 인천으로 달려가서 부모님과 꿈같은 재회를 하였다. 이 재회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천주교 신자, 성당이라는 매개체 덕분이었다. 부모님께서 성당(인천 답동)에 찾아가서, 내가 월남에 성공하였다면 신학교에 갔을 것이라고 믿고, ‘혹시 박정일이라는 학생이 신학교에 있는가?’ 물으셔서 쉽게 이루어진 것이다. 만일 내가 신자가 아니고 신학생이 아니었다라면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2003년에 이루어진 이산가족 찾기 운동(생방송, 벽보 등)을 통해 잘 기억하고 있다.

“신학교에 가면 유학도 갈 수 있대”.....

철학과 1학년을 마칠 무렵 나에게에는 또 하나의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웃어른께서 나에게 로마로 유학을 가라고 명하시는 것이었다.



▲ 교복 수단을 입은 신학생들.

어안이 멍멍했다. 공부도 공부지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만리타향에서 피난살이 하시는 부모님과 어린 여동생들을 남겨 두고 훌쩍 멀리 떠난다는 것이 마음에 걸

렸다. 더구나 나는 8남매의 4남 중 홀로 남은 남자이다. (그때만 해도 다른 남자 형제들의 생사를 모르는 상태였다. 바로 밑의 동생은 이북에서 인민군에 끌려갔었기 때문에 그 생사를 알 수 없었고, 두 형님은 피난 도중에 헤어졌다. 당시의 사정은 나의 「북한 생활 체험기」에 상술한 바 있다.) 더구나 어렵사리 재회한 지도 몇 달 안 되는 이때에 다시 이별이라니..... 그러나 곰곰이 생각한 끝에, 교회의 가르침대로, 사제는 가족을 떠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새기며, 웃어른의 명을 순히 따르기로 결심하고 떠나기를 결심하니 마음도 편하였다. 그러면서 중학교 시절 어느 여름 밤 지금은 수녀인 동갑내기 사촌 여동생이 나에게 했던 “신학교에 가면 공부를 많이 한대. 그리고 유학도 갈 수 있대. 너도 신학교에 가면 좋겠네.”라는 말이 떠올라 회심의 웃음을 짓기도 했다.

셋이 함께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셋 중 맏형이었던 부산교구 허인 바오로는 로마에서 중도하차하여 귀국한 뒤 외국어대학교의 이태리어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태리어 사전을 펴내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소식이 끊겨 근황을 알 수 없어 아쉽다. 또 하나의 다른 신학생은 대구대교구 김영환 베네딕토(사제가 되어 귀국하여 신학교 교수, 학장을 지냈고 몬시뇰로 서임되었는데 2000년에 선종하였다.), 그리고 나였다. 본래 우리는 1951년에 떠나기로 예정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여권을 내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을 기다린 후 1952년에 비로소 여권을 받아 출국할 수



▲ 우르바노 신학교 전경.



▲ 베드로 대성전과 광장.

있게 되었다.

드디어 출국 날짜가 다가왔다. 어떤 가방에 무슨 물건을 넣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에 지참할 수 있었던 것은 미화 100달러뿐이었다. 부산 수영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탔다. 일반 버스도 타 본 적이 없는 처지였는데,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간다니 꿈만 같았다.

불과 2시간도 안 되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하는데 5년여 만에 일본어를 들으니 쉽게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을 하려니 잘 나오지 않고 한국말이 튀어 나오곤 하여 속으로 웃었다. 세월의 무상함과 한국의 해방과 세태의 변화를 실감케 하는 체험이었다. 누군가의 출영을 받아 일본 교황대사관(당시에 한국에는 교황대사관이 없었고 일본 교황대사가 한국 교황대사도 겸하였다.)에 인도되어 환영을 받고 대사관에서 만찬을 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주교님과 식사를 해본 적이 없는 처지였는데 외국인 교황대사와 식사(그것도 한식이 아닌 양식)를 하게 되니 얼마나 조심스러웠던지……. 서양에 가면 음식 예

의는 어떻다는 이야기를 미리 듣고 있긴 하였지만…….

다음날, 8월 15일 밤 11시 몇 분인지 기억이 안난다. KLM 항공사 비행기로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하였다. 꿈같은 시간이었다. 비행기가 공중을 날고 주변이 조용해졌을 즈음 나의 머리를 주마등같이 스쳐가는 상념의 연속……. 많은 파란 끝에 북한 덕원신학교에 입학하였던 일, 덕원신학교의 강제 폐쇄와 귀가, 서울신학교에 가기 위한 월남 감행과 해주에서의 2개월간의 유치장 생활, 6·25 발발, 그리고 다시 20일간의 도보 피난 월남과 제주도와 부산 영도 신선동에서의 피난 신학교 생활 등등…….

1952년 8월 17일 로마에 내리다……

비행기는 홍콩과 태국의 방콕, 파키스탄 카라치에 정박하여 급유하고 로마 캄피노(Ciampino) 비행장에 도착한 것이 로마시간 17일 아침 9시였다. 지금은 12시간에 주파하는 거리를 장장 25시간이 걸린 셈이었다. 어리둥절하며 비행장에 내



▲ 신학교 옥상에서 찍은 사진(1952년 10월). 십자가는 신학교 옥상에 있는 것. 멀리 베드로 대성전의 원형 '돔'이 보인다. (우로부터: 허인 바오로, 김영환 베네딕도, 필자, 류영도 디오니시오 신부(1951년 서품), 백남익 디오니시오 신학생)

리니 선배 신학생 백남익 디오니시오(대전교구 신학생, 후에 귀국하여 훌륭하게 사목하였고, 몬시뇰로 서임되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다.)가 마중 나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우리 일행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길이 없었다. 안도와 함께 긴장했던 긴 여행의 피곤이 싹 가시고 기쁨과 표현하기 어려운 희망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운전 기사와 유창한 이태리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도 저렇게 이태리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앞섰다.

캄피노 공항에서 로마시내까지는 약 1시간의 거리였다. 우선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우르바노 신학교에 들렀다가(여름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신학생들은 모두 별장에 가 있었고 학교는 비어 있었다. 신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카스텔 간돌포(Castel Gandolfo)라는 작은 도시 주변에 있는 별장에서 지낸다.) 건물 밖 구경만 하고 우리는 바로 베드로 대성전으로 향하였다. 말로만 들었던 베드로 대성전, 교황님께서 계시는 곳, 우리 교회의 대본산! 가슴이 울렁거리고 뛰었다. 우르바노 신학교에서 베드로 대성전까지는 불과 1킬로미터 정도다.

약 40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광대한 광장과 150미터 높이의 웅장한 대성전 앞에 선 우리들은 놀라움과 감격으로 할 말을 잃었다. 성전 안에 들

어가 보았지만 지금은 그때의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성당 내부의 웅장함과(대성전 내부의 길이가 130여 미터나 된다.) 화려함이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여 정신을 잃었는지도 모른다!

대성전 구경을 마치고 우리는 바로 별장이 있는 카스텔 간돌포로 갔다. 장상들은 물론 동료 신학생들의 환영이 대단하였다. 우리의 도착은 보통 다른 새로운 학생이 학교에 도착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경우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뉴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모두 한국의 비참한 동족상쟁의 6·25 전쟁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권을 받지 못하여 1년을 기다리고 겨우 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도 미리 알고 있었던 터에, 우리가 도착하였으니…….

바로 우리에게 각각 방학 동안 지낼 방이 배정되었다. 자그마한 아담한 방이었다. 침대, 옷장, 세면대까지 있었다. 나는 무심히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틀어보았다. 물이 짝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빨리 잠가야지.' 하며 물꼭지를 잠갔다. 불현듯 신선동 피난 신학교에서 아침에 일어나 세숫대야를 들고 도랑물을 받아 세수하던 생각이 무의식중에 작용했기 때문이었을까!

이렇게 나의 우르바노 신학교 생활은 행복하게 시작되었다. 아직 방학 중이었고 개학이 9월 중순이니 약 1개월의 시간 여유가 있어서 휴식을 취하고 이태리어 공부도 천천히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순례자의 노래, 신심과 시심



정달영 프란치스코 전 한국일보 주필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여름호 9쪽 참조) 설립 50주년을 지내며 가톨릭 언론인으로 살다가 평신도 정달영 프란치스코(1939~2006)를 그리는 이들이 많았다. 이 글은 『정달영의 기자론 기사론』에 실린 것으로 고인의 아들 정민 씨가 제공하였다.

몇 개의 상패와 감사패 따위가 남는다. 한 인간이 질척거리며 살아온 흔적, 아니면 망명정부의 훈장 같은 것일는지 모른다. 정년퇴직자, 또는 은퇴자의 거실 풍경은 그들 상패와 감사패가 번들거릴수록 오히려 쓸쓸하다.

내게도 그런 기억의 흔적들이 꽤 있다. 자랑스러운 것보다는 감추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 보인다. 의례적인 것, 돌아가며 받는 것, 거기 적힌 상찬의 말이 과분하고 부담되는 것이 그 대부분이다.

그렇더라도 어찌랴. 그것이 ‘소풍 가듯’ 한 번 다녀갈 뿐인 이승에서, 내가 걸어간 자취, 그 한 자락의 찌꺼기인 것을 나는 안다. 싫더라도 그것들을 감출 재주는 없는 이치다.

감사패에 남은 인생의 흔적들

키가 한 뼘보다 약간 큰, 작은 ‘패’ 하나가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감사패는 그래서 늘 진열대의 맨 앞자리에 놓인다. 번쩍거리지도 않아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것만은 그래도 남아 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같은 모양이다.

감사패에 적힌 문안을 보면, 받는 이는 ‘한국

일보사 문화부장 정○○’이고 주는 이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추기경 김수환’이다. 날짜는 ‘1980년 11월 23일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되어 있다. 5월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바로 그 해다. 문안 내용은 이러했다.

“귀하는 1980년 가을 한국일보 문화면에 ‘한국의 聖地’를 기획 연재하였는 바, 그 내용이 한국천주교 전래의 역사를 빛냈으며 이 땅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삼가 귀하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패의 머리에는 김 추기경의 주교문장(主教紋章)이, 끝에는 서울대교구장 인(印)이 찍혔다. 종교기관에서 내는 신문도 아닌 일반 종합지가 천주교 전래사(傳來史)의 자취를 연재한 데 대해 교회측이 특별한 반응과 감사를 표시한 것이다.

교회 수장의 이름으로 된 이런 종류의 감사패가 신문사의 담당부장과 취재기자에게 전달된 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싶은 만큼 이례적인 일이었다. 김 추기경 집무실에서 나는 이 연재물의 취재기자인 이충우(李忠雨) 차

장과 함께 패를 전달받았다. 당시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오지영 신부가 곁에서 거들었다.

한 연재물이 가져온 대전환

이충우 기자. 오늘 나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중이다. ‘한국의 성지’라는 연재물에서 비롯된 한 기자의 존재론적 대전환, 그로써 초래된 개인의 변화가 이야기의 줄거리다.

오랜 사회부 근무에서 문화부장으로 옮겨갔을 때, 그곳엔 차장이 둘 있었다. 선임 차장은 장명수 기자였고, 다른 하나가 종교 문화재 등을 담당하는 이충우 기자였다. 두 차장 모두 신앙을 가진 이는 아니었다.

천주교의 한국 전래와 관련된 ‘성지’들을 찾아서 순교의 피로 얼룩진 200년 교회사를 짚어보는 시리즈를 기획한 것은 특정 종교나 종파를 떠나서도 크게 의미 있는 일로 보였다. 서구문화의 이입(移入)을 둘러싼 격렬한 갈등과 충돌, 그 생생한 역사의 현상이 곳곳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의 천주교회는 몇 가지 연대기적 매듭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때였기도 하다. 우선, 선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창설’한 해로부터 200주년 되는 해가 1984년으로 다가와 있었고, 그에 앞서 1981년은 교황청이 조선교구를 정식으로 설정(1831년)한 150주년이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그 무렵은 유신 폭압체제를 통해 내연(內燃) 또는 성숙한 저항의 영성(靈性)이 폭발적인 신자 증가로 나타나던 때였다.

뒷날 돌이켜볼 때, 1984년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기념행사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참석하신 가운데 한국 순교성인 103위 시성식(諡聖式)으로 치러졌고, 그 5년 뒤인 1989년에도 제44차 세계성체대회가 역시 같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려

교황의 두 번째 방한이라는 경사를 만끽했으므로, 1980년대는 한국 가톨릭으로서는 ‘영광의 연대’가 틀림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연이지만 그 머리맡 언저리에 한 신문의 문화면 연재물인 ‘한국의 성지’도 있었던 셈이다.

이충우의 ‘한국의 성지’

‘한국의 성지’는 천진암 강학회에서 시작한다. 이 땅의 천주교 기원사를 크게 끌어올린, 18세기 후반 젊은 학자들의 영자산 주어사 모임에 주목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자취를 찾아 개발을 시작한, 한 사제(변기영 신부)의 열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첫 장을 연 것이다. 변 신부는 그가 체득한 ‘교회 창설’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달변으로 쏟아내 이충우 기자를 교회사의 길 동반자로 어렵지 않게 ‘입문’시켰던 것 같다. 이 차장은 금세 학구적 자세로 파고들었다.

기자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반짝이는 재기로 일찍 두각을 보이는, 그러나 끈기는 못 미치는 ‘숨 짧은’ 형이 있는가 하면, 친화력을 무기로 취재원에 밀착하고 주어진 과제를 끈질기게 천착하는 ‘숨 긴’ 형이 있다. 심층 취재, 또는 탐사보도가 요청되는 요즘 추세에 걸맞은 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차장은 『주간한국』에 배치되었을 때 국립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을 장기 연재로 파헤쳐 이미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한 ‘저술가’였다.

그의 기자로서의 장점은 취재원과 친화력이다. 취재는 기사자료를 쥐고 있는 취재원으로 하여금 그 자료를 털어놓도록 유도하는 행위이기 쉽다. 부담 주지 않고 접근하여 말을 하도록 이끌어 낸다. 신뢰감, 유머 있는 언행, 부지런함 등은 그 덕목이다.

처음 교회사라는 딱딱한 현장, 익숙하지 않은

교리 지식 등과 씨름하면서 ‘성지’를 순례하던 그는 순교자들의 개인사를 추적(追體驗)하는 과정에서 깊은 감동을 받는 눈치였다. 데스크인 내가 보기에 그가 교회의 역사, 순교의 현장, 죽음을 무릅쓴 신앙에 대해 함몰하다시피 빠져들어간 속도는 인상적이었다. 그는 초기 강학회 무렵의 학자들과 신앙 선조들의 인맥을 보학자(講學者) 이상으로 꿰찼고, 그들의 거점과 퍼져나간 지역에 대해 손바닥 보듯 소상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변화는 그들 선조가 지녔던 신앙심을 그가 스스로 받아들이고자 결심한 것이다. 연재가 끝날 무렵에 그는 그가 살던 동네 성당의 김창석 신부에게서 영세한다. 세례명은 안드레아였다. 부인과 자녀 모두가 함께였음은 물론이다. 신앙을 얻은 것은 그가 기자로서, 또는 ‘한국의 성지’ 연재로 얻은 저널리즘에서의 성취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정말 귀중한 가치에 눈을 뜬 것이다.

진실로 중요한 것을 안 사람

며칠 전에 그가 시집 한 권을 들고 찾아왔다. 『순례자의 노래』(2002, 양업교회사연구소)로 제목 붙은 장편 서사시다. “시로 쓴 조선 순교의 역사 - 천주 신앙인들 삶과 사랑의 송가”라는 설명이 있다. 몇 권의 공저, 편저를 포함하면 10번째 저술이다. 그는 어느새 한국 교회사의 전문가였고, 부럽게도 신심(信心)에 시심(詩心)을 더한, 지금은 어엿한 신앙시인이다.

신문 연재물 ‘한국의 성지’는 1981년 출간(분도출판사) 이후, 제4판부터 『다시 찾는 한국의 성지』로 개제되어 판을 거듭하는 ‘숨이 긴’ 저서다. 그 후 『천주학이 무어길래』(1985, 가톨릭출판사), 첫 시집 『꽃이 되고 빛이 되어』(1995, 바오로 딸), 『신앙유산답사기』(1996, 사람과 사람), 『신앙유산답사기

2』(1999, 사람과 사람)를 잇달아 냈다. 그는 지금 신앙유산연구회장이고 가톨릭문인회 회원이다.

한국일보에서 24년, 평화방송 보도국장 겸 평화신문 편집국장으로 8년을 일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알고 행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충우 기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를 행한 사람이다. 행운아다. 세속적인 성취, 저널리스트로서의 이름은 그 행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른다.

『순례자의 노래』에 실린 그의 시편 ‘기도 1’을 듣기로 하자.

기도 1

이충우

한치 앞 안 보이는 산길을 가다
더 오를 수도 내리지도 못한 채
나뭇가지 붙들고 매달린 채
누가 나 좀 살려주소 소리치자
내 목소리 끝에 떠오른 생각
두 손을 놓으면 될 것 아니냐
아니 벼랑으로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래도 믿고 실행을 결심한 순간
나뭇가지에서 두 손 떼었을 때
나의 발바닥 땅에 닿는 게 아닌가
오! 매달림, 그것은 바로 기도였구나. 卍

교황 프란치스코와 소공동체 2

이병호 빈첸시오 원로사목자, 전 전주교구장 주교

이 글은 4월 7~8일 전주교구 천호성지 피정의 집에서 연 2017년 한국평협 춘계 상임위원회에서 ‘한국 교회와 평신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병호 주교의 특강 내용으로, 지난 호에 이어 실는다.



사진 제공: 도서출판 나무와숲, 『헬로 프란치스코』

5. 이런 마음 자세와 구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사제가 크게 부족한 남미의 사목자들은 하느님께서 평신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사제의 수효와 관계없이도, 교회의 복음화 사명 수행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미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에서 “하느님 백성의 대다수”(102항)인 평신도들을 교회의 복음화 사명 수행의 능동적 주체로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전통적 구조, 특히 본당 사목구를 소공동체(28, 29항) 기반의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본당 사목구를 “공동체들의 공동체”(28항)로 만들으로써, “길을 가다가 목마른 이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지성소, 지속적 선교 활동의 중심지”(같은 곳)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당 사목구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살아 있는 친교와 참여의 장소가 되고 온전히 선교를 지향하여야 한다”(28항)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목자는 “초기 그리스도인 공

동체(사도 4,32 참조)의 이상을 따라, 언제나 자기 교구의 교회 안에서 선교적 친교를 증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그렇게 하듯이, 사목자가 상황에 따라 위치를 바꿔며 백성들 ‘앞에’, ‘가운데에’ 그리고 ‘뒤에’서 함께 걸을 것을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사목자와 신자들은 서로 보완하고 밀어주면서 교회가 받은 복음선포 사명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목자와 교우들이 함께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낄 것이며, 짐은 가벼워지고 멍에는 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 모세에게 충고한 장인 이드로의 지혜가 오늘에 와서도 목자와 양떼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에게 파묻혀 일을 처리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노라고 하루 종일 기다리며 지쳐 있는 모습을 보고 사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자네뿐 아니라 자네가 거느린 이 백성도 아주 지쳐 버리고 말겠

네. 이렇게 힘겨운 일을 어떻게 혼자서 해내겠는가? 이제 내가 한 마디 충고할 터이니 들어 보게. 아무쪼록 하느님께서 자네를 도와주시기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대변인이 되어 그들이 제시하는 소송을 하느님 앞에 내어 놓게.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 주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게.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참되게 살며 욕심이 없고 유능한 사람을 찾아내어 백성을 다스리게 세워 주는 것이 좋겠네. 천 명을 거느릴 사람, 백 명을 거느릴 사람, 오십 명을 거느릴 사람, 열 명을 거느릴 사람을 세우게. 언제나 그들을 시켜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 큰 사건만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게.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에게 맡겨 두게. 그들과 짐을 나누어 자네 짐을 덜도록 하게. 자네가 이와 같이 일을 처리한다면, 이것이 곧 하느님의 뜻에도 부합되고 자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어 이 백성이 모두 만족해서 집으로 돌아 갈 것일세”(탈출 18,17-24).

6.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의 시대’였던 구약에 백성을 인도할 영도자-목자의 일을 ‘돕기 위해’ 찾아낸 방안이었고, ‘실체의 시대’인 그리스도의 때에 와서는, 백성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다른 누구를 돕는 협조자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영도자-왕-목자와 예언자가 되어”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속 깊이에서 울려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 움직이면 돌아온 탕자처럼 참된 자유인이 되어 살 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큰 아들처럼, 몸은 아버지의 집에 그대로 있어도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떠나 내면화되지 않은 명령을 걸로만 따르면, 그 자신의 표현대로 “중이나 다

름없는” 삶을 끝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떠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도적 권고 첫머리가 강조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기쁨이 자신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주는 체험을 함으로써, 죄와 우울증, 가슴속 깊이 사무치던 허무감과 외로움에서 해방된 사람으로서(복음의 기쁨, 1항 참조), 아직도 그런 어둠과 절망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루카 복음 10장에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뒤 주께서 달리 일흔 두 제자를 뽑아 앞으로 찾아가실 여러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청하여라. 떠나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시작되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일흔 두 제자가 기쁨에 넘쳐 돌아와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까지도 복종시켰습니다’” 하는 활동보고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반응이 소개됩니다.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이나 전갈을 짓밟는 능력과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세상에서 너희를 해칠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악령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도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리고 성서는 “바로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언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과는 대조되고 인간적 눈으로는 부족하기 이룰데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룩하신 놀라운 일들에 관해 하느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림자의 시대가 아닌 실체의 시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사실 많은 예언자들과 제왕들도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7. 우리는 오늘날 참으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을 앞세운 현대 문명은 불과 한 세대 전까지도 상상할 수 없었을 만큼 빠르고 깊게 인간의 삶과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학이 최근 60년 동안 이론 발전은 그 전 6천 년 동안 이론 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과학의 발전에는 가속이 붙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이를 발전은 인류가 지난 2만 년 동안 이루어낸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합니다.

현기증 나는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 기술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실제로 사람들의 정신에 현기증을 일으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는 사람의 인격보다 돈을 높이 올려놓고, 자연과 재화를 함께 나누기보다 혼자만 차지하려드는 새로운 이상승배(복음의 기쁨, 55항)

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을 잃고, 그 모조품이며 돈으로 살 수 있는 ‘쾌락’에 속아 불나방처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다운 기쁨을 주는 삶의 길,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요한 16,22) 하신 바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은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 참된 기쁨을 찾아낸 그리스도인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마을과 동네, 자기가 사는 지역에 근거지를 두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무 부담 없이 들러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소공동체는 동네 한가운데에, 아파트의 한 집에 마련되어 “영원히 살게 하는 물”(요한 4,14 참조)을 주는 우물입니다.  <끝>

그분의 뜻

류은경 보나 소설가



시련이 닥쳤을 때 주문처럼 외는 말이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에도 견디기 힘들면 이 경구를 떠올린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 '이유'와 '때'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결정됨을 믿고 있다. 그분의 뜻은 우리가 결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심오하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처음부터 하느님께로 향했던 것은 아니다.

천주교에 입교하기 전까지 나는 무교였다. 특별히 믿는 신앙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다.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거나 심적 혼란을 느끼면 부처님을 찾거나 점집을 방문했다. 빈 적도 없는 조상님과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매달리기도 했었다. 그랬던 내가 『불멸』을 집필하게 되면서 천주교에 매료되었고, 하느님을 믿게 됐다.

『불멸』은 나의 첫 창작소설로, 조선 초대 천주교회의 박해 역사를 다루고 있다. 시놉시스 구상을 거쳐 3년 넘게 작업하여 초반부에 해당하는 1, 2권 원고를 탈고했다. 내가 세례를 받던 해, 2014년 봄이었다.

그런데 출간 즈음하여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윤지충 바오로와 그의 동료 123분이 복자로 시성된다는 소식이었다. 윤지충 바오로를 비롯하여 20여 분의 순교자들이 소설 『불멸』에 등장한다.

천주교회의 기틀을 마련하신 그분들이 공로를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는데 드디어 시복이 된다니 뭉뚱이 기뻐다.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생각도 들었다.

'책 홍보에 좋겠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후속편 원고를 써서 판매 호재를 놓치지 말아야지.'

내심 이런 계산도 했다. 작가도 생활인이고, 먹고살아야 하다 보니 셈속이 발동했던 것이다. 뭔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책이 출간되고 나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는 수술 후 부작용이었다. 1년 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팠다. 교황님께서 방한하셨을 때도 시복미사 현장에 참석하기는커녕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며 기도도 동참했다. 이렇게 아플 바에야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너무나 끔찍했던 시간들이었다. 독한 약과 통증에 몸부림치며 '주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원망을 많이 했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주님이 더 잘 아시면서, 주님 일을 하는 나를 왜 멈춰 서게 하셨는지 그분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이들이 그랬듯, 나 역시 꽃다운 아이들과 소중한 생명들이 무참하게 스러지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주님이 계신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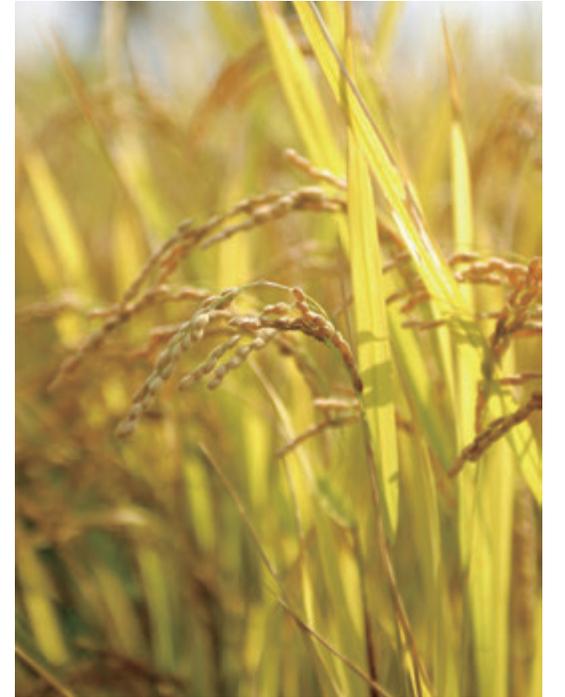
각이 들었으나 끈을 놓을 수 없어 아픈 와중에도 매일 목주기도를 올리며 생존자를 구해달라고 하느님께 빌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인 것들뿐이었다. 희생자들을 하느님께서 품에 안아달라고 기도했지만, 이미 그분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인재로 인해 벌어진 참사임을 알면서도 궁극적인 책임을 그분께로 돌렸다.

믿음이 크게 훼손된 상태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쓰자니 도무지 몰입이 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작업 속도가 느려졌다. 어떡하든 글을 써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자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다. 가족에게 크나큰 시련이 닥쳤고, 겨우 수습하고 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왜 자꾸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느님을 붙잡고 이유를 따져 묻고 싶었다. '하느님이 내가 이 소설을 완성하길 원치 않으시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그렇다고 작품을 포기할 순 없었다.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으며 중단되었던 작업을 다시 시작할 때마다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읽고 이어쓰기를 반복했다. 필력에 한계를 느끼거나 또다시 절망에 빠지면 하느님께 이겨낼 힘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그러나 이전처럼 기도에 간절함이 배어들지 않았다. 하느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정작 나서주셔야 할 때 나서주지 않는 분을 붙잡고 기도해 봐야 무슨 소용인가, 회의감이 들었던 것이다. 믿음이 강한 분들은 사랑의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이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 도무지 피부로 와 닿질 않았다.

그렇게 그분에게서 마음이 멀어져갈 때,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분노한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나 역시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날의 광장에서 수백의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밝혔다. 그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면서 깨달았다. '그동안 하느님께서 때를 기다리셨구나. 그분의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그동안 하느님께서 때를 기다리셨구나. 그분의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여기시고 응답을 미루셨구나.'

않았다고 여기시고 응답을 미루셨구나.' 그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한 나는 왜 당장 불의를 바로잡지 않으시냐고 따져 물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분을 의심하기까지 했다.

나는 믿음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스스로를 반성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중이라고 자부하면서 세속적인 계산에 연연했던 점도 후회했다. 그런 나를 질책하고 단련시키고자 하느님께서 그간의 시련을 겪게 하신 건지도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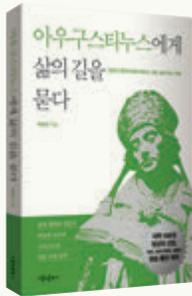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때가 있다. 그러니 조금해하지 말고 모든 일에 겸손하고 인내하며 맡은 소임에 충실해야지. 하느님께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빗쟁이처럼 채근하는 못된 버릇도 기필코 고쳐야겠다.' 다짐 또 다짐하며 오늘도 나는 원고 앞에 앉는다. 



평신도 양서

정리

류주희 편집위원



박승찬 지음/ 가톨릭출판사
152×210/ 344면/ 17,000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

방탕을 일삼던 문제아에서 서양철학의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며 교회의 안과 밖에서 존경을 받는 아우구스티누스.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사상가이며 최고의 스승이자 성인인 아우구스티누스가 탐구하고 경험해 얻은 깨달음과 교훈을 현장감 있는 스토리텔링 화법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한다.

자칫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철학적인 내용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저자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다. 각 강의가 끝날 때마다 저자가 직접 들은 질문에 답한 내용도 실어 삶의 고민이나 의문도 해소할 수 있다.



피델리스 루페르트 지음
이종한 옮김/ 분도출판사
140×200/ 288면/ 15,000원

영적 전투 배우기

내면의 평화를 위한 수도승들의 가르침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 요한 카시아누스 같은 초기 수도승의 전통을 이어 받은 베네딕토의 영적 전투법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체험에 맞게 재해석했다. '영혼의 악습', '부정적 각인', '습관' 같은 내적 문제를 맞닥뜨리는 정화 과정을 배워 내면의 평화에 이르는 길로 안내한다.

고독 속에서 내적 소음, 곧 악마를 만나기 때문에 고요를 회피하게 되는 현상도 지적한다. 삶에 부정적으로 주입된 반복에 맞서 하느님의 현존을 상기하려면 긍정적 말씀을 영혼에 거둬 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영엽 지음/ 바오로딸
150×210/ 336면/ 15,000원

허영엽 신부의 성경산책

〈서울주보〉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연재한 '성경산책'의 글을 한데 모아 엮은 책이다.

주제에 맞게 성경 관련 지식을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구약과 신약에 걸쳐 인물 중심으로 소개하되 그 인물에 연관된 이야기와 역사적 배경도 쉽고 재미있게 풀어준다.

독자가 직접 관련 성경 구절을 제시된 대로 찾아 읽게 유도하고 괄호 안에 정답을 쓰는 형식으로 각 꼭지를 마무리한다.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는 것은 훌륭한 기도라는 점에서도 말씀과 친숙해지도록 하는 데 길잡이가 된다.



한민택 지음/ 생활성서사
140×200/ 304면/ 15,000원

하느님과의 숨바꼭질

신앙은 짐이 아닌 행복이고 기쁨이며, 우리에게 오로지 자유로울 의무만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자신이 걸어온,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정을 나누도록 생생한 모험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여정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숨바꼭질을 연상케 한다.

첫 화두로 변화를 꼽는다. 변화의 중요한 진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신앙으로 변화의 기쁨을 만끽한 이야기는 어렵거나 달갑지 않게 느껴졌던 변화가 삶의 활력소로 돌아오는 시간을 선사한다.



황인수 지음/ 성바오로
145×210/ 224면/ 13,000원

끝없는 길 언제나 새로운 길

월간 성서 잡지 『야곱의 우물』에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재했던 '교부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한데 묶었다.

이름이 알려진 교부들을 중심으로 고통, 말씀 읽기, 기도, 이웃 사랑, 깨어 있음,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까지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다룬다. 읽다 보면 천 년도 더 된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다를 바 없이 고통을 겪고 고민하며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길을 찾던 사람들임을 만나게 된다. 말미에서는 교부들의 가르침과 오늘의 현실을 연관 짓는 질문을 던진다.



한동일 지음/ 흐름출판
145×225/ 312면/ 15,000원

라틴어 수업

한국인 최초, 동아시아 최초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 변호사이자 가톨릭 사제인 한동일 교수의 2010~2016년 서강대학교 강의를 집약했다.

최고 명강의 중 하나로 선정된 저자의 강의는 라틴어에서 파생한 유럽 언어를 시작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 문화, 사회 제도, 법, 종교를 포함해 오늘날 이탈리아 이야기를 아우르는 종합 인문 교양 수업에 가까웠다. 유학 시절의 경험과 공부의 어려움 등 삶의 면면을 이야기한다. 그 속에서 드러나는 삶과 죽음, 자존, 관계와 태도의 문제는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할 화두이다.



수도회 영성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는 삶

한국CLC(Christian Life Community)

글 이현화 루치아 한국CLC 회원

한국CLC는 사랑과 정의의 삶을 통해 세상에 봉사하는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의 국제공동체이다.

20대의 나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듯 대학 입시 압박 속에서 다른 여력 없이 공부만 했다. 진로로 간호사의 뜻을 품었고 대학을 가서도 고등학교 때보다 빡빡한 학업 스케줄 속에서 국가고시며 취업을 위해 집, 도서관을 반복해 오가며 생활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다.

그때쯤 나의 질문은 시작되었다. '정말 내가 바라는 건 뭐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떨까?' '왜 가난은 없어지지 않나?' 이런 질문이 생기며 그동안 내가 달려오고 달려가려고 했던 것들이 과연 옳은가? 이런 물음 속에 그때서야 사춘기를 겪었다.

나에 대해 더 알고 싶어했고, 정신과 간호사여서 심리극이며 미술치료며 인간의 심리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갔지만, 나는 계속 갈증이 났다. 이후에도 MBTI며, 에니어그램, 각종 심리서적, 피정까지도 나의 두드림은 계속되었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기분전환은 되었지만 다시금 도돌이표처럼 삶이 공허했다.

CLC와의 만남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던 지인을 통해 CLC에서 주관하는 강의를 소개 받았다. '세상 속의 영성수련'이라는 강의였다. 세상! 영성수련! 이 두 단어가 나에게 호기심을 주었고, 열심히 일을 마무리하고 강의를 들으러 갔다. 강의를 들으며, 뭔가 내 머리를 '땡' 하고 치는 것 같았다. '내게 신앙이란 무엇이었나?' 유아세례를 받고 성가정에서 자랐지만, 주일을 거르지 않으려 하고 십계명을 지키려 애썼던 율법적인 신앙으로, 그저 학교나 직장에 열심히 다니듯이 미사 다니는 것밖에 없었던 나였다.



▲ 한국CLC 서울지구 회원들.



CLC 회원으로의 일상

서약을 했다고 해서 하느님의 풍성한 사랑,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사랑하고자 뛰어들고 싶은 그 열망이 항상 충만할 수는 없다. 세상 속에서 기쁘게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CLC로 사는 우리의 소명임에도 영성생활, 즉 기도하고 성찰하는 것을 게을리 할 때 이 삶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영성생활을 하는 자체도 공동체의 사랑과 지원이 없었다면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서약을 하며 나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생활방식을 살아가기로 서약했다.

미사와 성사생활에 애쓰며, 매일 복음 묵상을 한다. 하루에 대한 의식성찰을 통해 나와 함께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회심한다. 매년 서약 회원 연례피정인 7박 8일 침묵피정을 가지며 더

강의를 통해, 나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세상에 대한 질문 또한 생겨났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질문을 하고 느끼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 때로는, 굳건한 저 힘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등 예수님과 만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더 예수님을 만나고자 『영성수련의 실제』를 통해 기도훈련을 시작했고, 이후 CLC 유기서약을 위한 수련기에 들어갔다. 3년여 동안의 교육, 훈련, 수련기, 영성수련 피정을 통해 CLC 유기서약 회원이 되었다.

그 과정 안에서 나는 무엇보다 나와 함께 계시고, 무척이나 많은 선물을 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



육 영성생활의 중심을 잡는다.

나는 직업적으로 정신과 상담간호사로 일하며, 정신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CLC 성소 안에서 좀 더 내적 평화와 자유를 잃지 않고자 상담기술뿐 아니라, 기도와 성찰에 애쓴다.

같이 일하는 동료와 선배, 나의 반려자인 남편, 주님의 선물인 아이들, 이웃, 정치참여, 소비문화, 친환경을 위한 노력 등, 온 지구를 보살피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훈련한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머무르는 곳에 식별을 통한 사도적 태도가 드러나게 된다.

공동체적 삶, 사도적 삶

서약 후 3년이 지났을 즈음, CLC 공동사도직 중 사회 사도직으로 운영하던 이주민센터에서 실무자 요청을 받았다. 식별을 통해 요청에 응답하고 실무자로 파견되었다. 나에게 익숙한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조금은 두려웠지만, 주님과 공동체를 의지하며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조 개선에 함께하고자 파견의 삶을 살게 되었다.

두렵지만, 주님께 의탁하며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은 나를 더 깊이 보게 하셨다. 그러면서 나의 보기 싫고 감추고 싶은 모습도 있는 그대로 보도록 자유롭게 해 주셨다. 그들을 약자로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도전과 용기, 절실함 등 내가 얻은 게 더 많다.



CLC는 계속해서 한국사회 안에서 주님의 요청을 식별한다. 2002년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현실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이주민센터가 개소되었는데, 이후 관련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며 국가 지원기관이 늘어났고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한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어졌다. 그래서 CLC는 공동식별을 통해, 이주민센터는 10주년을 기점으로 정돈하고 사회의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청소년 중심의 '희망학교'를 새롭게 열게 되었다. 따라서 나의 파견도 마치게 되었다.

그렇게 공동사도직에 파견되어 일하며 더욱 영적인 민감함, 사도적인 태도, 공동체성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몸소 수련하게 되었다.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기

CLC 서약회원으로 살아가던 중에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이제는 아이 둘이 태어나 더 단란한 가정이 꾸려졌다. 그러면서 나의 연민은 더욱 세상으로 눈길이 돌려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주님이 창조하신 대로 회복해 가기를 기도하게 된다.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는 CLC 회원들은 바쁘다. 사회구조 개선이 필요한 곳곳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사도적인 삶들로 바빠진다.

각자의 가정 안에서, 이웃 안에서, 소공동체 안에서,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세계라는 지구촌 안에서, 우리는 개인(또는 직업적인 역량)으로 그리고 CLC 공동사도직을 통해 흠뻑려진 교회로 존재한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선물을 기쁘게 세상에 내어 줄 것이다.

다른 평신도들도 CLC에서 주관하는 강좌「예수님에게 인생을 묻다」, 「목요신학 강좌」 등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에 초대되면 좋겠다. 



영화 '군함도'

꼭 '성찬(盛饌)'이어야 '성찬(聖餐)'인가

이대현 요나 국민대 겸임교수 · 영화평론가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은 참으로 많은 '지옥'을 겪었다.



드라마
2017.07.26 개봉 | 15세 이상 관람가
132분 | 감독 류승완

참으로 많은 것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어느 하나 잊을 수 없다. 강제징용, 위안부, 친일 앞잡이, 그리고 배신자들. 일제치하의 고통과 치욕, 고통과 분노의 역사는 여전히 살아있다. 역사와 기억이 아니라, 현재이고 실재이다.

잘못된 역사, 아픈 역사를 다시 확인하는 일은 어렵고도 괴롭다. 그래도 외면하거나 감추려 하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그 역사를 직시하면서 치유해야 하는 이유는, 상처를 준 자와 상처를 입은 자 모두 다시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 직시와 반성과 사죄가 용서로 이어진다. 주님도 진실로 참회하는 자는 기꺼이 용서하신다.

역사는 그 역사 속을 지나온 사람들의 것이다.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아니면 몇몇의 어설픈 합의로 그 진실이 바뀌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 역사는 허구가 아니기에 함부로 상상해서도 안 된다.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속이려는 것도 온당하지 못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역사라고 하더라도 제멋대로 바꾸거나 과장하는 것도 위험하다.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은 참으로 많은 '지옥'을 겪었다. 학도병과 위안부들, 징용자들이 그랬다. 우리가 군함도로 부르는 일본 나가사키 앞바다에 있는 하시마 탄광에 끌려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군함도가 어떤 섬이고, 일제가 그곳에서 조선인들에게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는 증언으로, 남아있는 사료로 이미 알고 있다. 류승완 감독의 영화 <군함도>





역사도 얼마든지 활극이 되고, 오락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사실'은 명백히 살아있어야 한다.
허구와 상상은 사실과 사실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는 것이어야 하지
사실 자체를 바꾸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는 그들의 이야기다.

패망을 앞둔 일제의 발악이 극에 달했던 1945년 2월, 한 무리의 조선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아니면 돈 벌게 해준다고 해서, 아니면 속아서 지옥의 섬 '군함도'로 간다. 이미 그곳에서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지하 1,000미터가 넘는 곳까지 들어가 석탄을 채취하고 있다.

〈군함도〉는 시작부터 이렇게 고백했다. 실제 사실에 영감을 받은 '창작'이라고.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허구란 얘기다. 군함도란 모티프를 가지고 마음껏 과장해 일제의 잔학성을 고발하고 조선인들의 참상과 불굴의 정신을 마음껏, 그리고 생생하게 한번 그려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실존 여부와 관계없이 인물부터

다채롭고 호화롭게 짰다. 경성 반도호텔 악단장인 강옥(황정민)과 일곱 살 난 그의 외동딸 소희(강수안), 종로 일대를 주름잡던 깡패 최칠성(소지섭), 강제위안부였던 말년(이정현)이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한 배를 탔다. 경성제대 학생도 끼워넣었다.

영화는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 끔찍한 탄광 안의 풍경을 통해 이곳이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시키는 지옥, 죽음의 섬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린다. 지옥의 폭군인 일본인 소장과 그 지옥을 더 지옥으로 만드는 일본인보다 더 악랄한 조선인 앞잡이 또한 빼놓지 않았다. 같은 조선인 징용자이면서 일본의 '개' 노릇을 하는 송종구, 거물 독립투사였지만 변절해 일본인 탄광소장과 짜고 동포들을 속이며 고혈을 빨아먹는 윤학철이 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 있다.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윤학철을 구하려고 나중에 인부로 가장해 섬에 침투하는 광복군 OSS대원 박무영(송중기).

이 정도면 한바탕 활극을 펼칠 진용은 충분히 갖춘 셈이 아닌가. 배우들 면면은 어떤가. 역시 성찬(盛饌)이다. 아니나 다를까. 〈군함도〉는 일본인들의 극단적 가학과 그에 대한 저항, 치를 떨게 하는 반민족적 행위와 고통의 끝자락에서도 피어나는 동족애로 분노와 안타까움, 통쾌함과 뜨거움의 극단적 감정을 자극하는 화려한 활극을 펼친다.

최칠성이 보기 좋게 주먹으로 송종구를 놓치고 작업반장이 되고, 일본인 유관으로 간 어린 소희가 아슬아슬하게 악단에서 부르던 노래와 춤으로 위기를 벗어난다. 강옥은 일본인 비위 맞추기로 막장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윤학철은 태연하게 독립지도자 행세를 해 조선인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리고 신분을 숨기고 잠입한 박무영은 예리한 감각으로 윤학철의 정체를 밝혀낸다.

인물들을 통한 감정의 극대화도 아끼지 않았다. 말년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위안부 동원에 앞장선 조선인 앞잡이들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고, 춘화와 어린 여자아이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통해 일본인들의 변태적 정서를 고발했다. '희망가'를 함께 부르는 강옥과 소희를 통해서도 극한 상황 속에서 애절한 가족사랑을 느끼게 했다.

그런 다분히 감정적 공감을 가지고 거쳐 〈군함도〉는 영화의 궁극적 목적이 한판의 거대한 승부에서의 통쾌한 승리인양 복수와 탈출극을 벌인다. 강옥은 딸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서고, 박무영은 변절자를 처단하고 일당백의 불사조로 조선인 탈출의 선봉장이 된다. 깡패 최칠성은 말자에게 순정을 보여주고, 조선인들의 탈출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의리의 사나이'가 된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다. 어디에선가 본 듯한 '기시감'을 준다. 강옥, 박무영, 말자, 송종구, 최칠성, 윤학철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과 이미지 그리고 그들이 쥘

어내는 이야기들이. 일제만행을 고발한 온갖 영화들, 액션영화, 심지어 오래된 서부영화 〈황야의 7인〉까지 떠올리게 한다.



〈군함도〉는 욕심이 과했다. 영화 한 편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했고,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 했다. 일제의 강제징용의 잔학성 고발에 만족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와 친일 앞잡이와 변절자의 존재까지 한꺼번에 한 상에 올려놓으려다 보니 남이 만든 요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영화 〈군함도〉에서 만나고 싶었던 것은 허구의 멋진 탈출성공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조금은 착잡하고 답답할지라도 그곳에서의 진실과 일본이 그것을 숨기려는 이유이다. 아무리 역사적 사실에서 영감을 받은 '창작'이라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숨긴 진실의 '장부'의 표지만 보여주지 말고 한 번이라고 펼쳐 읽었어야 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도.

역사도 얼마든지 활극이 되고, 오락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사실'은 명백히 살아있어야 한다. 허구와 상상은 사실과 사실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는 것이어야 하지 사실 자체를 바꾸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화려한 재료들로 만든 온갖 요리로 가득한 '성찬(盛饌)'이 꼭 '성찬(聖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서툰데 작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담아, 내 숨씨로 맛을 낸 음식이야말로 '성찬(聖餐)'이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한국평협 전반기 연수회 개최, 평신도 사도직 중 요성 다시 되새겨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 조성풍 신부)는 7월 7~8일까지 대구대교구 꾸르실료 교육관에서 교구 평협 대표와 회원단체 대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 평협 활동과 단체 사도직의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한국평협의 지난 50년을 돌아 보고 성찰하는 전반기 연수회를 개최했다.

개막미사를 집전한 조환길 대주교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비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섬김과 종의 자세를 본받아 교회 발전을 위해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조규만 주교는 “평신도는 세상 안에 살며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사람

들이다. 이제 평신도의 사도직 활동이 교회 내에만 머무르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평신도의 특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서 평협 활동의 지난 50년을 교구 평협과 단체 사도직 활동에 비추어 성찰하면서, 향후 평협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토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평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협의 정체성 확립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서는 평협과 평단협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교구 평협 명칭을 하나로 통일해야 하며 한국평협 차원의 평신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0주년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는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노인, 청소년 문제에 관한 사도직 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구평단협 이경기 담당사제는 파견미사에서 “교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평신도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참가자들의 수고에 감사를 전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어머니학교 5주간 과정 마치고 미사로 수료식 가져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 조성풍 신부)는 어머니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법을 찾자는 취지로 개설한 「어머니학교」의 5주 과정을 마무리하며 지난 6월 21일 마지막 강의와 함께 종강미사로 수료식을 가졌다.

담당사제 조성풍 신부는 ‘어머니답게-성모님을 닮은 어머니’를 주제로 강의 후 미사를 집전하면서 “어머

니부터 복음화되어야 한다. 모든 수강생이 어머니학 교에서 많은 것을 깨우쳤을 것이고, 하느님께서도 많은 것을 일깨워주셨을 것이다. 이 안에서 발견한 깨달음이 어머니로서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 자녀를 위해 이 자리에 발걸음 한 것이 이미 변화의 시작이다. 언제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자녀를 훌륭히 키워나가는 어머니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머니들을 격려했다.



수강생들은 자녀들의 이름이 적힌 초를 봉헌하며 ‘신앙 안에서 더욱 어머니다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 후 마지막 인사에서 권길중 회장은 “여기 모인 어머니들 모두 각자 가정의 중심이 되어 예수님을 모신 작은 가정을 이루어 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평협, 단체 활성화를 위한 고민 함께 나눠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 조성풍 신부)는 6월 23~24일, 장충동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평협 회원단체장과 임원 50여 명이 모

여 ‘2017년 회원단체장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발표한 「활기찬 교회」 서한을 중심으로 단체 사도직의 은사와 카리스마에 대한 특강과 각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사례 발표, 단체 활성화에 대한 그룹 토의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 특강에서 조성풍 신부는 “단체 사도직은 각 단체가 받은 은사와 카리스마에 따라 저마다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는 실천적 삶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강 후 이어진 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례 발표는 단체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날 단체 활성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룹 토의에서 단체장들은 단체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재정 문제와 단체 소개를 위한 홍보 활동의 한계에 대해 말하면서, “본당이나 교구 차원에서 일반 신자들에게 단체를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사도직 활동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파견미사를 주례한 손희송 주교는 단체장들의 헌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도구로서 그분을 드러내는 일을 기쁘게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자.”고 당부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제3차 생명연수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김광현, 담당 김민희 신부)는 6월 17일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제3차 생명연수'를 실시하였다.

각 본당 생명분과위원(생명분과, 교육분과, 가정분과위원 등)과 평단협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 '호스피스 이해', '본당에서 시행하는 생명분과 활동'에 관한 강의를 진행되었고, 본당에서 실시하는 생명운동에 대한 나눔과 토의로 이어졌다.

연수에 참가한 각 본당 생명분과위원들과 평단협 임원들은 가톨릭 신앙 안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소명에 대하여 배우고 느끼며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 대건고등학교 생명캠페인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김광현, 담당 김민희 신부)는 7월 19일 논산 대건고등학교에서 '생명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자살예방, 낙태예방, 생명수호 캠페인 등의 내용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알리고 생명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2회 성체현양대회 및 성체거동



지난 6월 6일, 김포성체성지에서는 인천교구 제2회 성체현양대회 및 성체거동이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주관으로 거행되었다. 김포성당에서 성체조배와 개회선언으로 시작하여 경축미사와 성체거동 및 성체강복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서구지구와 계양지구 9백여 명의 교구민이 참석했다.

경축미사를 집전한 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강론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고 여기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현 사회를 언급하며 "성체성사는 받아들임이다. 성체를 우리 안에 모시듯, 다른 이들을 받아들

이자."고 말했다. 또한 희생과 양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성체성사 안에서 얻을 수 있다며 성체조배를 권고했다.

미사 후에는 성체성지로 성체거동 행렬 후 성체강복을 하며 성체성사의 해를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았다. 성체강복 후에는 성체현시 및 조배가 늦은 저녁까지 이루어졌다.

● 사제성화의 날 및 금경축 미사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6월 23일, 답동주교좌성당에서 예수성심성월을 맞이하여 열린 사제성화의 날 미사를 봉헌하며 올해 금경축(사제수품 50주년)을 맞이한 박성규 · 김상용 신부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성체성사의 해를 지내는 인천교구는 미사에 앞서 성체조배를 한 후 교구장 정신철 주교와 금경축을 맞이한 두 신부가 공동 집전하여 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날 박성규 신부는 강론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바치고, 예수님과 성모님, 요셉 성인과 성가정을 이루며 기쁘게 살고 있다."며 은퇴 후 삶을 전했다. 또한 금경축을 축하해 준 모든 사제들과 교구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교회를 위

한 기도를 부탁했다. 미사 후 가톨릭 사목센터에서 열린 금경축 축하연에는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단체 임원 등이 참석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7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6월 24일 성남대리구청 지하회의실에서 상임위원 및 성남대리구 평협 임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은 상임위원회를 교구청에서 개최하였는데, 지난 2016 4차 상임위원회 때 교구와 대리구의 정보 교환 및 평협의 활성화를 위해 6개 대리구를 돌아가며 실시하자는 결의에 따라 1차는 안산대리구에서, 2차는 성남대리구에서 실시했고, 9월 3차는 수원대리구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4월에 개최된 2017 상반기 총회장 연수에 대한 평가 및 평협 앱 개발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 2017 교구 평단협 성경 골든벨 선포식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8월 19일 용인 모현면 능원리 야외에서 20개 단체 25명과 함께 9월 9일 교구청 마당에서 개최될 2017 평단협 성경 골든벨 축제 선포식 겸 영성지도 이근덕 신부의 영명 축일 축하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성 빈첸시오 아

바로교회에서 교구와 단체를 위해 애쓰는 신부와 단체회장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그동안의 성경 골든벨 진행 상황 보고와 영성지도신부의 영명축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원주교구 평협 하계연수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주, 담당 신동걸 신부, 이하 원주평협)는 8월 26~27일 1박 2일 간 강화도에서 하계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자유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교구 임원 및 단체장 40여 명이 참석하여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그동안의 협의회 활동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야기보따리가 풀어지면서 저마다 다른 신앙체험을 나누고 다짐하며 조금이나마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친교 시간 동안 담당사제는 참가자들에게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날 파견미사 후 회원들은 통일전망대와 강화성당 그리고 갑곶순교성지 방문을 끝으로 하루 순례일정을 마무리했다. 순교성지에서는 자유일정으로 기도하고 스스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평신도의 소명에 순종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것과 교구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원주평협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고, 교구를 위해 봉사하는 평협이 되도록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노력하자는 부탁의 말을 남겼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부산평협 2017년 1박 피정 및 성지순례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7월 1~2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안동교구 우곡성지 순례와 농은수련원에서 피정을 실시했다. 총대리 손삼석 주교와 선교사목국장 장재봉 신부, 상임위원(지구회장 포함) 26명이 참가한 이번 피정은 손삼석 주교의 '한국 최초의 수덕자 농은 홍유한의 삶과 신앙'이라는 주제의 특강과 함께 김대건 사제 축일미사 봉헌, 안동 지역 문화 탐방 등으로 진행되었다. 안동 구시장에서의 찜닭 점심은 순례의 멋과 맛을 한층 더했다. 안동교구 권혁주 주교님과 안동평협 회장단의 극진한 환영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청주교구 평협, 제1회 하느님 말씀축제 개최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길병석, 담당 서철신부, 이하 교구평협)는 지난 6월 3일 올림피아기념국민생활관에서 제1회 하느님 말씀축제를 개최하였다.

'가까이 계신 예수님, 즐거운 성경'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하느님 말씀축제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답게살겠습니다'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153실천운동'의 실천행사로 기획되었다. '153실천운동'은 매일 성경을 1장씩 읽고, 5번 기도하고, 3번 '감사합니다' 말하기를 실천하자는 운동이다.



하느님 말씀축제는 교구 공동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고자 기획한 말씀 잔치이다. 300여 명의

교구 신자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말씀 풀이 시간, 사생대회 등으로 꾸러졌다. 또한 성경 필사본 전시회도 열렸으며 서예, 캘리, 묵주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되어 참가 신자들에게 실천 성구를 써주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특히 전시된 성경필사본을 접한 신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하였다.

참석자들은 교구 선교사목국장 서철 신부 주례로 파견미사를 봉헌하며 앞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서 신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하느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외우고 되새길 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깨달음을 얻어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라며 "교구평협과 함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골로 3,16)라는 말씀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마산교구 설정 50주년 기념공연 '순교자의 딸 유섬이' 세미뮤지컬



천주교 마산교구에서는 교구장 배기현 주교의 사목적인 해안에 따라 지난 2016년 '순교자의 딸 유섬이' 시극을 발간하고 지구별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순교복자 유향검의 딸 '유섬이 연극' 공연을 준비하여 전 신자에게 일상에서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자 서울과 교구에서 총 8차례

의 순회공연을 한다.

마산교구가 주최하고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총회장 안상덕, 이하 마산평협)가 주관하며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평화방송, BNK경남은행이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10월 19~21일 공연을 시작하여 진주, 거제, 창원, 마산 등 지역 순회공연으로 진행된다.

공연에 앞서 8월 11일에는 '유섬이' 유배길을 순례하며, 유섬이의 삶과 천주교 박해 등을 통한 느낌을 체험하였다. 8월 12일에는 경남 거제 내간리 '유섬이 묘소'에서 '순교자의 딸 유섬이' 제작 발표회를 겸한 축복식이 있었다.

이어서 거제지구 회장단 '유섬이' 공연 설명회와 마산, 창원지구 회장단 설명회, 8월 13일에는 진주지구 회장단 설명회를 가졌다. 마산평협은 매주 '유섬이 공연' 실무추진회의와 공연기금조성활동 그리고 기획홍보활동으로 수준 높은 작품을 위하여 땀 흘리고 있다

자, 담당 김정용 신부)는 6월 23~24일 장수 바위목피정 의집에서 담당사제와 임원 등 22명과 함께 임원수련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전반기에 실시한 사업들을 평가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들에 대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임원간 친목과 일치를 이루는 친교의 시간이 되었다.

● **역대 평협 회장과의 만남**



광주평협은 7월 31일 역대 평협 회장들을 초대하여 함께하는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9명의 역대 회장들이 참석하여 교구 주요 현안과 평협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아울러 교구청 내 '비움의 십자가'와 '성모동산' 등을 둘러보면서 지난 이야기를 나누는 훈훈한 친교의 자리가 되었다.

● **소록도 도보성지 순례길 정비**

광주평협은 7월 26일과 8월 30일 고흥성당에서 소록도 1번지, 2번지 성당까지 총거리 30km 구간의 도

보성지 순례길을 개발하고 정비하였다.



순교자성월에 계획하고 있는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 행사(9월 23일)에 앞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도화성당과 녹동성당 등에 순례길 안내판을, 순례길에 이정표 등을 설치한 것이다.

● **탈핵 공동 행동의 날 참여**



광주평협은 8월 26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비움의 십자가' 앞에서 개최된 '탈핵 공동 행동의 날'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는 1부 미사, 2부 탈핵 문화제, 그리고 3부 거리행진으로 진행되었다.

미사를 집전한 김희중 대주교는 강론에서 "우리는 핵발전소를 멈추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행동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핵에너지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피조물을 보호하고 인간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하였다.

● **가톨릭 목포성지 축복식 참여**



광주평협은 8월 28일 가톨릭 목포성지에서 개최된 '역사박물관' 축복식에 참여하였다. 역사박물관은 1935년 착공하여 1937년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35㎡(373평) 규모로 적벽돌조와 목조마루로 건축되었으며, 광주대교구 최초 교구청을 거쳐 성골롬반 외방선교수녀회, 성신간호전문대학,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등에서 사용했다. 2012년 10월 17일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513호로 지정되어, 원형복원 및 보수정비공사를 거쳐 역사박물관으로 재탄생했다. 역사박물관은 1층은 광주대교구 역사관, 2층은 한국레지오마리에 박물관으로 꾸며졌으며, 3층은 초기 사제관 재현, 기획전시실 및 수장고 등으로 되어 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3차 워크숍 개최**



지난 6월 10일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3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권혁기, 담당 김정현 신부)는 지난 6월 3일 교구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평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안건은 1. 5월 3일 교구 친교의 날 행사 평가 2. 7월 8~9일 평협 하계연수 준비 3. 7월 16일 농민주일 행사 준비 협조 등을 논의하였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 · 여성위원회 임원수련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나현식, 담당 김정용 신부, 이하 광주평협)와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명

2017년 3차 워크숍이 임원과 운영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청 교육실에서 개최되었다. 담당사제로 새로 부임한 박성팔 총대리 신부와 함께 자치교구 설정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교구성가대의 성가발표회, 관현악 동호인으로 이루어진 윈드앙상블의 정기연주회가 있었다. 또한 장애인사목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체육대회 및 지속적인 성체조배회에서 주관하는 성체신심피정이 있었으며, 농민회가 주관하는 이웃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층 협의를 하였다.

회원정기연수는 9월 15~16일 천호피정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새로 착좌한 김선대 주교의 특강과 함께 교구장 집전 파견미사를 봉헌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10월 28일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을 개최하고, 원로사제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정기총회 일정, 교구성지사업, 유섬이 묘소참배, 회원 4차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천주교 순례길 '신축화해 길' 걷기 행사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6월 17일 천주교 순례길인 '신축화해 길' 12km 걷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 길은 1901년 신축년 천주교 신자들이 핍박

받고 처형되고 문힌 장소를 걸으며 선조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신앙심을 키워나감은 물론 환경생태의 소중함도 일깨우는 의미가 담겼다. 또한 천주교 순례길 6곳 중 5번째 개설한 길을 처음으로 걷게 된 것은 큰 보람이었다. 본 행사는 교구 내 신자 300여 명이 참여하여 완주함으로써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 뮤지컬 '사도 베드로' 공연 관람 기회 제공



가톨릭문화기획에서 제작하여 전국 단위로 복음 전파와 전교차원에서 공연을 전개해 오고 있는 뮤지컬 '사도 베드로' 공연을 제주교구 내 전 신자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지난 6월 29일~7월 4일까지 6일간 8차례에 걸쳐 제주시 화북성당에서 공연을 전개하였다.



도내 27개 전 본당 교우들을 대상으로 2,000여 명이 넘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호평을 얻을 수 있었음은 물론 복음전파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사회교리학교(제3기) 개설운영

"평신도들의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

구하는 것"(교회헌장 31항)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평신도들이 사회교리에 대한 더욱 정확한 지식을 얻고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성찰하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교구 평협이 주관이 되어 사회교리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사회교리학교는 지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이어 5년 만에 재개설하는 과정으로 9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주간 동안 매 월요일 저녁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접수 결과 30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하였으며, 강우일 주교를 비롯한 분야별 권위 있는 사제 또는 명망가들을 강사진으로 이루어 사회교리를 배우게 된다.

꾸르실로 한국협의회

● 제31차 전국 주간단회의 개최

꾸르실로 한국협의회(회장 서왕석, 담당 이재경 신부)는 지난 6월 10일 전주교구 교구청에서 제31차 전국 주간단회의를 개최하고 꾸르실로 한국협의회와 각 교구 꾸르실로의 사업보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꾸르실로 한국협의회는 「한국 꾸르실로 50년사」 편찬에 대한 중간보고와 함께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개최되었던 제5차 세계 올뜨레야 및 APG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제31차 전국 주간단회의에서는 개정된 기본사상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회의 결과, 각 교구가 료료를 나눠서 개정안을 만든 후 이를 중심으로 한국협의회 차원에서 료료를 개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제31차 주간단회의에는 각 교구 주간과 임원, 한국협의회 임원 등 23명이 참석했으며, 제32차 주간단회의는 11월 18일 대구대교구에서 개최된다.

마리아사업회 (포클라레운동)

● 경주와 제주에서 열린 2017 여름 마리아폴리 - 복음적 일치의 비결, '고통 속에 감추어진 보물'



포클라레운동의 일치 영성을 삶으로 체험해 보는 여름 집회, 마리아폴리가 지난 7월과 8월 제주도와 경주에서 각각 열렸다.

지난 8월 11~14일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열린 마리아폴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총 87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마리아폴리의 주제인 "아, 당신이군요!"는 고통 속에 담긴 하느님의 뜻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곧 알아보고 맞아들이자는 의미이다. 참가자들은 이에 대한 묵상과 이를 구체적인 삶에서 실천한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종교 간 대화, 중독 치유, 대화법, 건강한 먹거리 체험, 라틴 댄스, 비즈와 가족 공예 등 다양하고 풍성한 워크숍에 참가했다. 특히 남녀 젊은이, 청소년, 어린이 등 200여 명의 젊은 세대가 연령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에 적극 참가하기도 했다. 군산에서 온 한 참가자는 "처음에는 내가 손님 같았으나, 점차 이곳의 따뜻한 사랑의 기운을 알게 되며 나도 주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안내해 주게 되었다. 이곳의 하나하나가 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7~9일 제주도 성 이시돌 피정센터에서 '고통 속에 감추어진 보물'이라는 주제로 열린 마리아폴리에는 158명이 참가했다. 제주교구 신자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온 참가자들과 일본의 포클

라레운동 회원 7명도 함께했다.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의 주례로 봉헌된 개막미사 이후, 묵상과 경험담 나눔이 이어졌고, 용수성지, 치유의 숲, 수월봉 등을 방문하는 제주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상반기 워크숍 개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회장 이충원, 담당 김영환 신부)는 빈첸시오 아 바오로 성인 카리스마 400주년을 맞아 “와서 보시오”(요한 1,39)라는 주제로 지난 7월 15~16일 1박 2일 동안 수원 오자남 생활학습관에서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각 교구 회장단 및 사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빈첸시오의 영성과 한국 이사회의 발전방향, 대상자선정, 후원방법 등의 소재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의 하나로 양성교육위원회에서는 빈첸시오 지도자 양성과정 강좌를 개설하여 협의회 회장 및 임원의 영적 성장과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8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주일 10회에 걸쳐

수원 오자남 생활 학습관에서 교육을 실시 중이다.

한국 가톨릭 간호사협회

● 2017년 전국 간호대학생 연합 피정



한국 가톨릭 간호사협회는 6월 30일~7월 1일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홍현자(홍 마리아는시아 수녀) 회장을 비롯한 6명의 임원과 간호대학생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간호대학생 연합 피정을 개최했다. 피정 주제는 ‘삼포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장 위로 받고 싶은 “괜찮아”로 김동렬 안셀모 수사가 1박 2일 동안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떼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화를 위해 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기도하는 것이 감동적이었고, 위로와 긍정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 한국 가톨릭 간호사협회 2017년 제8차 영성세미나

한국 가톨릭 간호사협회는 7월 15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국회원 약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영성세미나를 개최했다. 홍현자(홍 마리아는시아 수녀) 회장의 인사와 말씀의 전례로 세미나를 열었다. 독서로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216항, 231항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가문비나무의 노래와 함께하는 영상기도로 이어졌다. 특강으로 영성심리(홍성남 신부), 삶속에 살아계신 하느님(신달자 사인)이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일상에서 놓칠 수 있는 행복을 일깨워주었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생애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회원들은 삶이 신앙과 연결되는 세미나였다고 평가하였다.



전국에서 온 회원들은 9월 수원교구 아론의집에서 있을 전국피정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

한국 가톨릭 시각 장애인 선교 협의회

● 2017년 상반기 전국 회장단 회의 개최



한국 가톨릭 시각 장애인 선교 협의회는 6월 15일 광주교구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에서 상반기 전국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각 교구 선교회 임원과 봉사자 28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전국 선교회의 상반기 활동 보고와 시각장애인용 전례서 소프트웨어 ‘로고스’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한 대회 실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2018년 전국 하계수련회의 개최지를 선정하였다. 광주 선교회 회원들과 함께한 미사와 각 교구 회장님들의 만남은 서로 힘을 얻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 가톨릭 여성 단체 협의회

●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가족이 늘다!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명자, 담당 김정용 신부)에서는 2017년 7월 18일 발족(창립)된 춘천교구 여성연합회를 새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14개 교구의 여성들이 인적네트워크를 이루어 서로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가정과 사회의 복음화에 앞장서가는 여성들의 단체로 거듭나기로 다짐하게 되었다. 춘천교구 여성연합회장은 김미영(베네딕타) 자매이다.

● 청주교구 청천본당 수해 피해가정 위로 방문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명자, 담당 김정용 신부, 이하 한가여협)는 7월 24일, 수해 피해를 입은 청주교구 청천본당 조영미(로사) 자매를 방문해 위로하였다. 로사 자매의 장부 차춘덕(야고보) 씨는 교중미사

를 마치고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기습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하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였다.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한가여협 대전교구 회장, 청주교구 회장과 함께 방문하여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한국 가톨릭 학교장회

• 2017 한국가톨릭학교장회 정기총회 및 신입 회장 선임



지난 2017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 36명의 학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톨릭 학교장회 정기총회를 예수 고난회 명상의집(서울 우이동)에서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사립학교의 현실, 학교 소속 지역교육청과

의 업무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김영장 회장 신부의 임기만료에 따라 후임으로 제주 신성여자고등학교 송동림 신부(사진)가 차기 한국가톨릭학교장회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차기 학교장 회의는 전주 성심여자고등학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 대구대교구 레지오 마리아에 도입 60주년 감사미사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단장 류해석, 담당 하성호 신부)는 6월 6일 주교좌 범어대성당에서 대구대교구 레지오 도입 6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했다. 1957년 1월 13일 왜관성당 종도의 모후 브레시디움 설립되면서 시작된 대구대교구 레지오 마리아는 1958년 대구 의덕의 거울 꾸리아가 설립되고, 이듬해인 1959년 2월 22일에 꼬미시움으로, 1986년 5월 1일에 레지아로, 2003년 12월 21일 세나투스 승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청주교구 원로사제인 장인산 신부를 초청하여 기념 특강을 실시했다. 장 신부는 특강에서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레지오 단원들이 성화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다.



감사미사는 대구대교구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주례, 안동교구 교구장 권혁주 주교, 왜관 베네딕토 수도원 박현동 아빠스와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루르드

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심미사로 봉헌됐다. 조환길 대주교는 강론에서 레지오 교본 3장을 언급하며 “레지오 마리아의 정신은 성모님의 정신이다. 이 성모님의 정신은 겸손, 믿음, 순명의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셨고, 우리도 이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오늘 복음에서도 성모님은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하셨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성모님은 평생 일대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며 순명하셨다. 레지오 단원들도 이런 순명의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레지오 단원의 순명 정신을 강조했다.

영성체 후에 간단한 축하식이 거행됐으며, 식중예조 대주교가 모범이 되는 소년 레지오 단원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미사에는 3,000여 명의 단원들과 내빈들이 참석했다.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

• 청년단원 야외행사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단장 허정애, 담당 정영진 신부)는 8월 19일 용문 청소년 수련장에서 세나투스 직속 꼬미시움 소속 청년단원 야외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사전에 청년 브레시디움 단장 간담회를 열어 청년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맞추어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 행사는 평소엔 만날 기회가 없었던 청년 단원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편안한 마음

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레크레이션으로 시작되었다.

토론 시간을 통해서는 청년 레지오 단원을 늘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청년 레지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급 평의회 지원이나 협조가 요청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청년단원들이 장년단원들과 함께 브레시디움에서 활동하는 방안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 등 청년 레지오의 발전과 활성화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친교의 시간을 통해 못다한 브레시디움 운영과 애로 사항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으며 친교의 시간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 제2단계 10기 기사교육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단장 허정애, 담당 정영진 신부)는 7월 15~16일 의정부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 피정동에서 제2단계 10기 레지오 마리아 기사교육을 실시했다. 첫째 날은 이영제 신부가 ‘레지오와 선교’를 주제로 강의하며 선교의 주체, 대상, 방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설명하였고, 선교를 할 때에는 나 자신이 선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지혜롭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해 강의한 송용민 신부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이후 생겨난 개신교 교단들의 특징, 한국 교회 일치 운동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둘째 날 첫 강의는 노길명 교수가 ‘신흥 종교’를 주제로 신흥 종교가 생겨난 사회·역사적 배경과 신흥 종교의 왕국인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신혼 종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강의에서는 나연수 신부가 '성령과 마리아'를 주제로 성모 공경에 대한 교회 역사적 배경과 올바른 성모 신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강의했다. 나 신부는 신앙과 신심이 함께 영향을 주며 서로를 길러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한국 매리지 엔카운터

● 디퍼주말



한국ME는 장충동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6월 2일부터 4일까지 151차 디퍼주말,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152차 디퍼주말을 실시했다. 담당사제 한 명과 한 쌍의 발표부부가 진행하였으며, 23쌍의 부부와, 10명의 사제가 참가한 가운데 ME 발표부부와 발표사제를 양성하는 기본 교육을 2회 실시했다.



부부간의 더욱 깊은 사랑과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ME 주말은 전국에서 6월~8월 2박 3일 일정으로 36주말과 3째신주말이 실시되었으며, 전국 17개 교구 및 지역에서 많은 사제와 부부들이 참가했다.

● 제2차 팀 양성교육



한국ME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동안 장충동 성 베네딕도 피정의집에서 23대 한국ME 대표팀 및 부부 대표팀, 사제(발표 및 미사 집전)와 팀 양성 31쌍의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사도직 프로그램을 통한 양성팀 부부의 바람직한 자세와 주말 발표문 유의점 등을 전달하였고,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교구대표 간담회



한국ME는 2017년 7월 7~8일 부산교구 주최로 부산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피정의 집에서 교구 대표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17개 교구 및 지역 대표팀과 한국ME 23대 상임위원 부부 그리고 부산교구 상임위원 부부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간담회는 ME 40주년 가족모임 결산보고와 한국ME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 한국ME 40주년 전국가족모임 해단식

한국ME 도입 4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가족모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7월 15일 장충동 베네딕도 회관 옆 봉헌회관 5층에서 행사위원 50여 명이 모여 40주년 가족모임 행사 동영상을 상영하였으며, 결과보고 후 대표신부님의 집전으로 해단식 파견미사 및 한국ME 가족을 위한 미사를 드리고 공로패 수여 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한국ME 가족을 위한 미사

매월 셋째 주 토요일(6월 17일, 7월 15일(해단식 파견 미사 겸), 8월 19일)에 서울 명동 평화빌딩 별관 4층에서 한국ME 상임위원 및 미사 봉헌 부부들은 한국 ME의 발전과 ME가족을 위한 미사에서 다양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했다.

2018년은
한국평협 창립 50년의 해

신앙 선조들의
삶을 본받자!!!



'다움'으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약속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자기쇄신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웃도 나처럼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할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공동체를 넘어,
교회공동체와 사회공동체로 확산하는 사랑의 선순환 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교회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것을 극복하려는 자기변화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사회의 아픈 곳을 마주하는 용기, 통렬한 자기반성과 따뜻한 시선으로
'더불어 행복한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실천 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펼치고 있는 실천운동입니다.

각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부터 시작하여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회공동체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지향합니다.

Editor's Letter

뜨거웠던 여름을 돌아보는 시간, 높고 푸른 가을 하늘에서 밝은 햇살이 은총처럼 내립니다. 지난여름의 끝자락에 미사와 성체를 주제로 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한국 천주교회 230년 그리고 서울.' 조선대목구 설정(1831년) 기념일인 9월 9일, 바티칸 박물관 특별 기획 전시 개막 미사에도 참여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곳에 전시된 1811년 신미년에 우리 신앙 선조들이 비오 7세 교황께 보낸 한문 편지의 내용을 읽다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앞이 흐려집니다.

“프란치스코를 비롯한 저희 죄인들은 땅에 엎디어 가슴을 치면서 전 세계 성교회의 으뜸이시며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교황 성하께 이 글을 올리오니,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중략) 여전히 세상은 저희들을 괴롭히고 온갖 죄악이 저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례성사와 고해성사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바치는 미사에 참여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의 소망은 너무도 간절하지만 도대체 언제쯤이나 이루어질 수 있으리까.”

“사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책을 통해서 성교회의 도리를 찾아 구한 것은 우리나라 뿐입니다.”라는 편지 한 구절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신앙의 역사를 가진 천주교 신자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듯한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살아온 세월은 아름다웠다고/ 비로소 가만가만 꼬덕이고 싶습니다/ 작아서 시시 하나 안 잊히는 사건들도/ 이제 돌아보니/ 영원한 느낌표가 되어 있었노라고/ 그것들은 보석보다 아름답고 귀중한/ 우리의 추억과 재산이라고/ 우리만 아는 미소를 건네주고 싶습니다”(유안진의 시, '살아온 세월은 아름다웠다' 중에서).

아내와 함께 30년 만에 긴 여행을 하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지나온 제 삶도 돌아보았습니다. 과거에 매여 살면 우울해지고, 미래에 매여 살면 불안해지지만, 현재를 충실히 살면 행복해진다지요.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현재는 주님의 은총에 맡기며,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1테살 5,16-18)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 행복한 가을 되십시오.

편집장 배봉한 세례자 요한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에 관련된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7년 9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염지유	로사	clas@clas.or.kr
춘천평협	유효현	알렉산델	hyohyeon7013@daum.net
대전평단협	윤정분	아네스	tjclass@hanmail.net
인천평협	유병수	멜키올	mko0204@hanmail.net
수원평협	서덕희	미카엘라	pyonghyop@casuwon.or.kr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obdo@obdo.co.kr
의정부평단협	최태용	레오	choy1902@hanmail.net
부산평협	전영주	바오로	libys@hanmail.net
청주평협	이상철	방지거	howareyoulee@naver.com
마산평협	최명숙	안젤라	clacms@hanmail.net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전주평단협	유광용	대건 안드레아	teleto60@naver.com
제주평협	강수미	도미니카	enjoy7508@hanmail.net
구르실로 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hwjin70@naver.com
마리아사업회(포클라레운동)	최석균	마태오	maongchoi@hanmail.net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김영철	마티아	ssvpk@hanmail.net
한국 가톨릭 시각 장애인 선교 협의회	김정현	도로테아	webmaster@blindmission.or.kr
한국 가톨릭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ail.net

공지 사항

평신도 원고모집

한국평협이 개편 발행하는 계간 『평신도』는 교회 내 각종 정보와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들의 소식으로 엮는 종합정보지입니다. 『평신도』에서는 열린마당 코너의 생활수필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원고의 양은 200자 원고지 10매입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